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수원시 화성 성곽 미복원 구간 설계

Spatial Scenarios of Unrestored Areas of
Hwa-seong Fortress, Suwon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박 상 현




수원시 화성 성곽 미복원 구간 설계

지도교수 김 세 훈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박 상 현

박상현의 석사 학위论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원장	이유미	
부위원장	정육주	
위원	김세훈	

수원시 화성 성곽 미복원 구간 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박 상 현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2월

위 원 장 이유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정용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위 원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국문초록

최근 이루어진 동대문 역사문화 공원 조성, 국보 승례문의 복원, 서울 성곽 복원 등과 같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슈들은 도시가 문화재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문화재는 그 특성상 관련된 법적인 내용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 문화재 관련 사업이 도시 내에서 실행될 때 역사적 가치와 도시적 가치는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립 속에서 타협점을 찾고 문화유산 관련된 사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그것은 성곽이나 고궁, 왕릉과 같은 규모가 큰 문화재일수록 더 크고 많은 부분에서 장기간 나타난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사업기간을 결정하고 그 기간 내에 문화재 관련 사업을 마무리한다. 대체적으로 짧은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탓에 문화재를 재현하는 정도인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복원이전에 자리하던 도시의 맥락은 무시당한다. 옛것을 돌려놓기 위해 지금까지 자리잡혀온 질서가 깨지거나 지워지게 된다.

과거와 현재의 공간적인 맥락을 순조롭게 연결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생각이 본 설계의 시작이다.

설계 대상지인 수원화성은 조선시대 정조에 의해 건설된 최초의 계획도시이다. 계획의 일부였던 화성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원과 함께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수원시 화성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1차 복원사업이 실행된 이후 지금도 복원이 진행 중이며 현재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이다. 꾸준한 복원사업으로 인해 약 92%의 구간이 복원되어 있는 화성성곽은 나머지 8%에 해당하는 구간이 복원되면 100%로 복원이 완료된다.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구간이 도시설계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고 앞서 말했던 과거와 현재의 공간적 맥락을 연결해 줄 마지막 장소라고 생각하여 설계의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시는 다양한 맥락이 만나지만 그로인해 여러 부분에서 각각의 맥락들이 상충되는 장소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 설계의 대상지는 그 중에서 도시적 맥락(팔달문 주변시장)과 역사적 맥락(화성성곽)이 부딪히는 공간이다.

따라서, 화성성곽 미복원 구간을 설계하는 과정은 기존의 도시조직과 문화재를 현시대에서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시사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본 설계논문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는 대상지를 도시설계를 통해 화성성곽이 복원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색하여 결과적으로 동시대의 도시조직과 형태를 해치지 않으면서 복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단절된 동선을 연계하고 현재 도시조직과 마찰 없이 작동되도록 하는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주요어 : 수원시, 화성성곽, 화성성곽 미복원 구간, 문화유산, 문화재 복원, 성곽복원, 팔달문, 건축문화재

■ 학 번 : 2013-22022

목 차

제1장 서론

1절. 설계의 배경 및 목적	1
1. 설계의 배경	1
2. 설계의 목적	3
2절. 설계의 범위	4
1. 공간적 범위	4
2. 내용적 범위	6
3절. 설계진행과정	6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문화재복원의 정의와 도시적 의미	8
1. 문화재 복원의 정의	8
2. 역사 환경 보전의 기준과 유형	9
3. 건축문화재의 특징	11
4. 건축문화재 복원의 도시적 의미	13
2절. 문화재 주변공간에 대한 이해	14
1. 문화재 주변환경의 정의	14
2. 문화재 주변공간 관리제도	16
3.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17

3절. 성곽복원계획의 도시적 쟁점	20
1. 상업지역과 성곽복원계획	20
2. 성곽복원방식에 대한 접근	24

제3장 설계여건분석

1절. 대상지 개요	26
1. 대상지 위치	26
2. 화성성곽의 이해	27
3. 화성 성곽 복원 계획	29
4. 대상지 현황	31
2절. 대상지 분석	37
1. 구간별 대상지 개요	37
2. A 구간 (남문 로데오 청소년 문화공연장)	39
3. B 구간 (상업거리와 팔달문 로터리)	42
4. C 구간 (팔달문 시장길)	45
5. D 구간 (남수문 연결구간)	48

제4장 기본계획 및 설계

1절. 기본계획	52
1. 계획의 방향	52
2. 기본공간구상	54
3. 공간별 전략	55
2절. 공간별 계획 및 설계	60
1. 공간별 계획	60
2. 종합계획도	80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83
ABSTRACT	87

표 목차

[표 2-1] 역사환경의 가치판단기준	9
[표 2-2] 역사적 보전 유형	10
[표 2-3] 건축문화재 보존사업 절차 및 참여주체와 역할	12
[표 2-4] 문화재 관련 공간 정의	15
[표 2-5] 문화재 주변공간 관리법률과 지구·구역·지역	16
[표 2-6]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19
[표 2-7] 시장별 주요 취급품목	21

그림 목차

[그림 1-1] 공간적 범위	4
[그림 1-2] 대상지 전경	5
[그림 1-3] 설계의 진행과정	7
[그림 1-4] 축조시기가 다른 숙정문	11
[그림 1-5] 장안문 내 총탄흔적(6.25)	11
[그림 2-1] 문화재 및 주변환경의 공간적 범위	14
[그림 2-2] 화성성곽의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18
[그림 2-3]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대상지 영역)	18
[그림 2-4] 미복원 구간 주변 상권현황	20
[그림 2-5] 팔달문 주변 공시지가	22
[그림 2-6] 팔달문 주변 건축물 층수현황	22
[그림 2-7] 화서문 - 장안문 구간	25
[그림 2-8] 봉돈 - 동남각루 구간	25
[그림 2-9] 장안문 - 동북공심돈 구간	25
[그림 3-1] 대상지 위치도	26
[그림 3-2] 한국전쟁당시 파괴된 화성성곽	27
[그림 3-3] 수원시 변화과정	28
[그림 3-4] 과거와 현재의 행궁동 모습	28
[그림 3-5] 화성성역의례	29
[그림 3-6] 화성성곽복원 연혁	30
[그림 3-7] 대상지 현황	31
[그림 3-8] 대상지 주변 도로현황	32

[그림 3-9] 대상지 주변 토지이용현황	33
[그림 3-10] 건축물 층수 현황	34
[그림 3-11] 장안문 복원 계획	35
[그림 3-12] 장안문 복원 전	36
[그림 3-13] 장안문 복원 후	36
[그림 3-14] 팔달문 복원 예상 시나리오	36
[그림 3-15] 대상지 구간 분류	37
[그림 3-16] A 구간 현황	39
[그림 3-17] 현황사진 위치	40
[그림 3-18] A구간 토지이용현황	40
[그림 3-19] 무대에서 본 오픈스페이스와 화성성곽(1번 위치)	40
[그림 3-20] 성곽에서 본 오픈스페이스(2번 위치)	40
[그림 3-21] A구간과 마주하는 상업거리(3번 위치)	40
[그림 3-22] 팔달문측에서 본 A구간(4번 위치)	40
[그림 3-23] A구간 공간현황	41
[그림 3-24] B 구간 현황	42
[그림 3-25] 현황사진 및 단면도 위치	43
[그림 3-26] B 구간 토지이용현황	43
[그림 3-27] 성곽(남치)방면에서 바라본 팔달문(1번 위치)	43
[그림 3-28] 팔달문 전경(2번 위치)	43
[그림 3-29] 팔달문 전경(3번 위치)	43
[그림 3-30] 상업거리와 팔달문이 만나는 부분(4번 위치)	43
[그림 3-31] B 구간 역사길 현황 단면도	44
[그림 3-32] C 구간 현황	45
[그림 3-33] 현황사진 및 단면도 위치	46
[그림 3-34] C 구간 토지이용현황	46
[그림 3-35] 영동 아케이드 입구(2번 위치)	46
[그림 3-36] 상업거리 입구(3번 위치)	46
[그림 3-37] 상업거리 입구(4번 위치)	46
[그림 3-38] 팔달문 아케이드 입구(5번 위치)	46
[그림 3-39] 시장거리 전경(1번 위치)	47
[그림 3-40] C 구간 시장거리 현황 단면도	47
[그림 3-41] D 구간 현황	48
[그림 3-42] 현황사진 및 단면도 위치	49

[그림 3-43] C 구간 토지이용현황	49
[그림 3-44] 현황사진 및 단면도 위치	49
[그림 3-45] D 구간 골목 내 상업시설 2(2번 위치)	49
[그림 3-46] 복원 성곽과 상업거리 진입부(3번 위치)	50
[그림 3-47] 남수문 복원 지점	50
[그림 3-48] 건축물과 복원구간	50
[그림 3-49] 방치된 성곽 주변	50
[그림 3-50] 건축물과 복원된 성곽	50
[그림 3-51] 성곽에서 내려 본 보행로	50
[그림 3-52] D 구간 골목 현황 단면	51
[그림 4-1] 계획의 방향	52
[그림 4-2] 기본공간구상	54
[그림 4-3] 전이공간(남치부분) 공간개념	55
[그림 4-4] 역사길 연계 공간	56
[그림 4-5] 역사길 조성 개념	56
[그림 4-6] 보행교 공간 전략	57
[그림 4-7] 선형공원 공간 전략	58
[그림 4-8] 전이공간(남수문) 공간 개념	59
[그림 4-9] 전이공간(남치) 조감도	60
[그림 4-10] 전이공간(남치) 평면도	61
[그림 4-11] 전이공간(남치) 단면도 A	62
[그림 4-12] 전이공간(남치) 단면도 B	62
[그림 4-13] 전이공간(남치) 단면도 C	63
[그림 4-14] 전이공간(남치) 투시도 1	64
[그림 4-15] 전이공간(남치) 투시도 2	64
[그림 4-16] 전이공간(남치) 투시도 3	65
[그림 4-17] 전이공간(남치) 투시도 4	65
[그림 4-18] 역사길 구간 평면도	66
[그림 4-19] 역사길 투시도 1	67
[그림 4-20] 역사길 투시도 2	67
[그림 4-21] 보행교 평면도 1	68
[그림 4-22] 보행교 평면도 2	69
[그림 4-23] 보행교 조감도	70
[그림 4-24] 보행교 투시도 1	70

[그림 4-25] 보행교 투시도 2	71
[그림 4-26] 보행교 투시도 3	71
[그림 4-27] 시장선형공원 조감도	72
[그림 4-28] 시장선형공원 평면도	73
[그림 4-29] 시장선형공원 단면도 A, B	74
[그림 4-30] 시장선형공원 단면도 C, D	74
[그림 4-31] 시장선형공원 투시도 1	75
[그림 4-32] 시장선형공원 투시도 2	75
[그림 4-33] 시장선형공원 투시도 3	76
[그림 4-34] 시장선형공원 투시도 4	76
[그림 4-35] 전이공간(남수문) 평면도	77
[그림 4-36] 전이공간(남수문) 투시도 1	78
[그림 4-37] 전이공간(남수문) 투시도 2	78
[그림 4-38] 전이공간(남수문) 투시도 3	79
[그림 4-39] 전이공간(남수문) 투시도 4	79
[그림 4-40] 종합계획도	80

제1장 서론

1절. 설계의 배경 및 목적

1. 설계의 배경

최근 이루어진 동대문 역사문화 공원 조성, 국보 숭례문의 복원, 서울 성곽 복원 등과 같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슈들은 도시가 문화재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하고 지켜야하는 특성상 검토되어야 할 법적인 내용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사업이 도시 내에서 추진 될 때, 역사적 가치와 도시적 가치는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립 속에서 타협점을 찾고 문화유산 관련된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여도 추가적인 불편이 여러 방면에서 발생된다. 그것은 성곽이나 고궁, 왕릉과 같은 규모가 큰 문화재일수록 더 크고 많은 부분에서 장기간 나타나는데, 불편을 야기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기간을 결정하고 계획된 시간 내에 문화재 관련 사업을 마무리한다. 대체적으로 계획된 기간은 짧은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화재를 재현하는 정도로 마무리 된다.

그 과정에서 복원하기 전에 자리하던 도시의 맥락은 새로운 맥락으로 쉽게 덧씌워진다. 옛것을 돌려놓기 위해 지금까지 자리잡혀온 질서가 깨지거나 지워지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공간적인 맥락을 순조롭게 연결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생각이 본 설계의 시작이다.

설계의 대상지가 위치한 수원은 조선시대 정조에 의해 건설된 최초의 계획 도시이다. 계획의 일부였던 화성성곽은 수원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도시와

함께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수원시 화성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1차 복원사업이 실행된 이후 지금도 복원이 진행 중이며 현재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이다. 『화성성역의궤』를 기반으로 본 모습에 가깝게 복원된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수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재로 인식되었고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수원시의 다양한 맥락들과 관계 맺고 있다.

꾸준한 복원사업으로 인해 약 92%의 구간이 복원되어 있는 화성성곽은 나머지 8%에 해당하는 구간이 복원되면 100%로 복원이 완료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구간이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되며 앞서 말했던 과거와 현재의 공간적 맥락을 연결해 줄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되어 설계의 대상지로 선정했다.

2. 설계의 목적

도시는 다양한 맥락이 만나는 곳이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공간 집합체인 도시는 여러 부분에서 각각의 맥락들이 상충되는 장소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

설계의 대상지는 그 중에서 도시적 맥락(팔달문 주변시장)과 역사적 맥락(화성성곽)이 부딪히는 공간이다. 팔달문 주변지역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업지역으로 도시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의미를 갖고, 화성성곽은 수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어 도시의 시간을 담고 있는 역사적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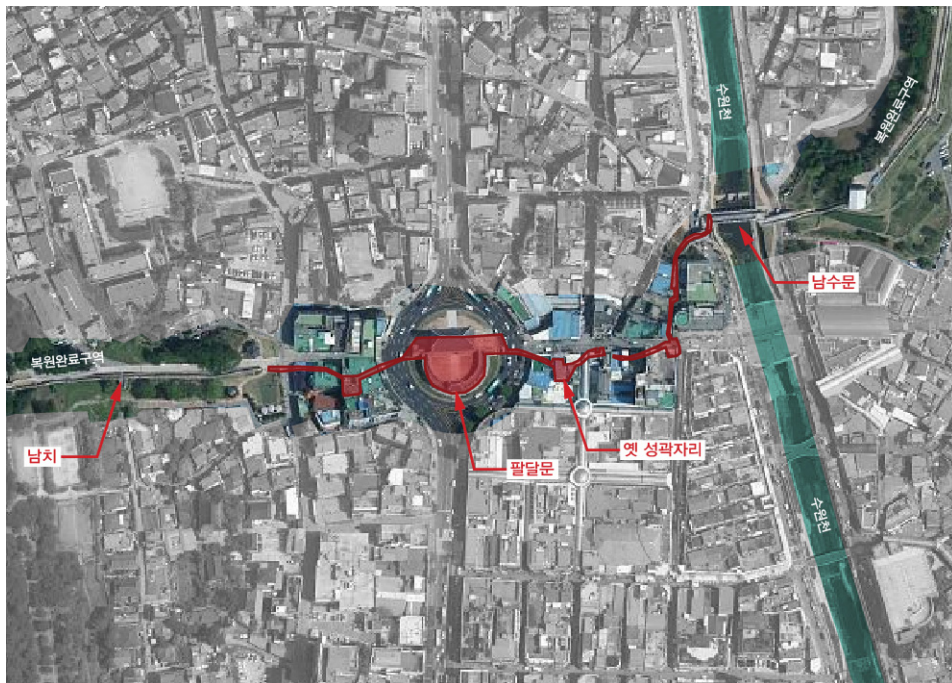
따라서 화성성곽 미복원 구간을 설계하는 과정은 기존의 도시조직과 문화재를 현시대에서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시사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본 설계논문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는 대상지를 도시설계를 통해 화성성곽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 및 사실을 기억하는 공간을 복원하고 기존 상권에서도 현재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 현재의 도시조직의 변화를 최소화 하는 화성성곽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 대상지내 차도로 인해 단절된 공간을 연계한다.
- 성곽과 전통시장, 속성이 다른 두 장소를 잇는 공간을 제안한다.

2절. 설계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설계 연구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 위치한 화성 성곽을 대상으로 하며 성곽 중에서도 현재 단절되어 있는 구간인 팔달문 주변의 남치 - 남수문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1-1] 공간적 범위

단절된 구간의 규모는 길이가 약 360m로 단절된 구간 주변에는 팔달문 시장을 포함하는 약 5개의 전통시장이 밀집된 대규모 전통시장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전통시장 외에도 일반상업지역과 수원천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행궁동 내에서도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특징으로 인해 공시지가

가 높은 구역이다. 따라서 화성 성곽의 다른 구간과 다르게 복원을 진행하는데 여러 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현재까지 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복원되지 않은 360m 구간을 포함하는 주변 일대를 본 연구의 설계 범위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팔달문 주변(남치 - 남수문 미복원 구간)
- 규 모 : 미복원 구간 약 360m



[그림 1-2] 대상지 전경

2. 내용적 범위

본 설계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선행연구를 비롯한 문화재 관련법, 제도, 정책 등을 통해 도시 내에 문화재가 존재했을 때 갖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고 대상지인 팔달문 주변 상권과 화성 성곽이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둘째로, 대상지가 갖고 있는 도시적 특성과 현재까지 이루어진 화성 성곽에 대한 사업, 계획 등에 대해 파악하고 대상지 주변의 물리적 환경 및 인문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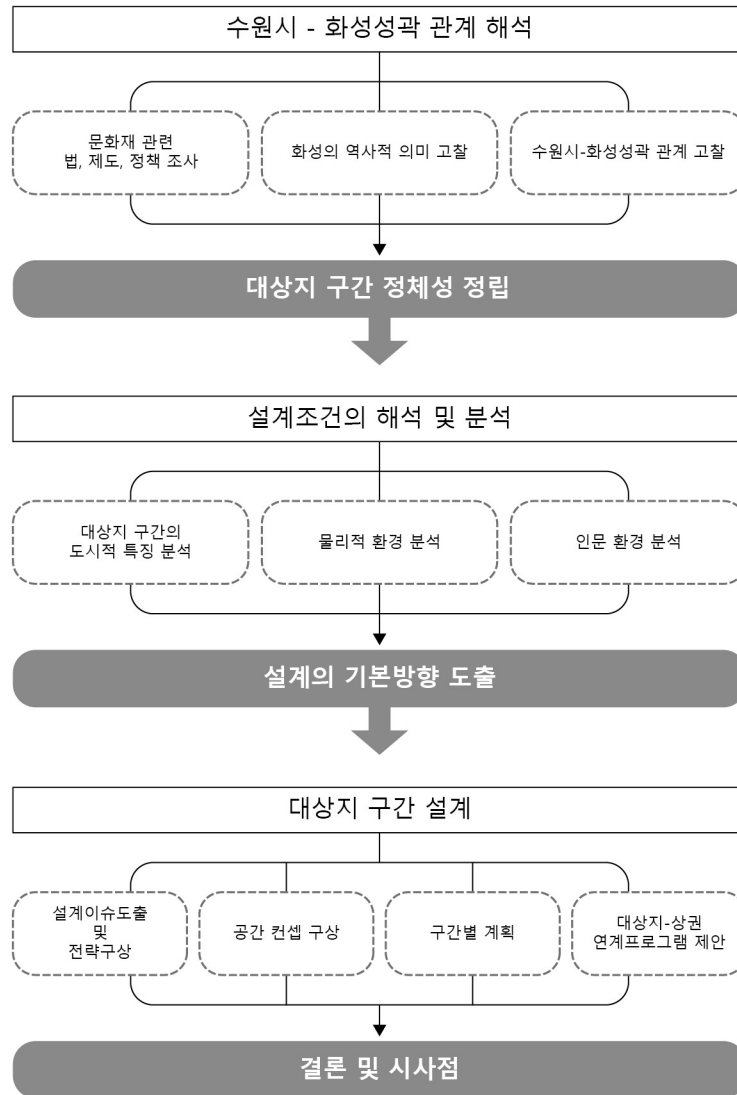
셋째로,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대상지에서 성곽의 단절된 구간을 연계하는 설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절. 설계진행과정

본 설계연구의 진행과정은 화성 성곽에 접근하기 위한 문화재 관련 법, 제도, 정책 등에 관련하여 조사한 후에 화성 성곽의 역사적인 의미 해석을 통하여 수원시와 화성 성곽의 관계를 해석하여 대상지 구간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한다.

다음으로 대상지의 도시적 특징을 비롯한 물리적 환경 및 인문 환경을 분석하여 설계의 기본방향을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설계의 이슈도출 및 전략을 구상하고 공간 컨셉, 구간별 계획, 대상지와 상권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담은 공간 계획을 제시하고 결과물로 정리된 설계안을 토대로 대상지에 대한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한다.



[그림 1-3] 설계의 진행과정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문화재 복원의 정의와 도시적 의미

1. 문화재 복원의 정의

「문화재보호법」¹⁾은 그 목적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²⁾ 더불어, 대한민국의 모든 유형, 무형 문화재를 보존하는 기본원칙이 되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관리, 수리, 복원 등이 이루어진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복원과 관련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³⁾라고 명명되어 있으며,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에서는 ‘보수’에 대한 내용을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유지’로 ‘복원’을 ‘기준연대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⁴⁾

하지만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원형’에 대한 정의가 없고,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에서는 기준연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화성성곽과 같은 건축문화재를 복원하는 경우 어느 시기의 모습을 복원시점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다만, 문화재청이 2009년에 제정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에서 복원을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⁵⁾

1)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2)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1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3조

4)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제2조, 제3조의 4, 제3조의5, 제3조의6

5)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사업(1975~1982)의 성과와 한계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분석을 중심으로 -

2. 역사 환경 보전의 기준과 유형

1) 역사 환경 보전의 가치판단기준⁶⁾

문화재로 지정된 특정한 사물이나 대상들 이외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한 역사적인 환경들이 존재하는데 수많은 역사 환경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오덕성(2000)은 역사 환경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다섯 가지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전형성, 희소성, 역사성, 상대성, 상징성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분류된 역사 환경은 분류에 따른 기준으로 보전해야할 대상이 되는 환경의 보전전략 및 방향을 결정하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계층이나 유형반영	전형성(Typical)으로, 건축적으로는 뛰어난 건물이나 도시환경이 아니더라도 가끔 계층이나 유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
희소가치의 문제	그 종류에서 유일하든지 건축양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물 역시 보존의 대상으로 고려
역사적인역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건물이나 도시환경은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일상적 생활사이의 상징적인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존
상대적인 비교우위	몇몇 건물들은 최상의 것 혹은 가장 큰 것 등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보호
상징성	건물이나 지구를 이루는 건물 군들은 그들 집단의 독자성을 물리적 표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시대를 이해하고 자신의 독자적 특성을 계승시키기 위해 보존

[표 2-4] 역사 환경의 가치판단기준

장하나래(2014),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6) 오덕성, 문홍길, 『도시설계』(서울: 기문당, 2000), p.180에서 발췌정리.

2) Wayne O. Attoe 의 역사 환경의 보전유형⁷⁾

역사적 환경은 주어진 환경이나 발생된 시기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특징을 갖기 때문에 그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방식을 Wayne O. Attoe 는 여섯 가지의 방식으로 역사 환경의 보전 유형을 분류하였다. 각각의 보전유형은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선택되어진다.

보존 Preser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합한 유형에 의해 변형되거나 파괴당하지 않도록 매력적이고 유용한 장소들을 보호 지방색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면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 변형도 허용하지 않음
복원 Rest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파괴된 형상을 대치하고 첨가된 것을 제거 고려사항:복원할 시대의 문제, 정확성, 편의시설 수용 문제
지구수복과 수리 Rehabili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낡은 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복원행위보다 역사적 정확성에 있어서 더 많은 융통성을 가짐 다소의 변화와 더불어 역사적 연속성, 장소에 대한 확실한 감각 필요
보 전 Conser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및 도시를 포함하는 인간의 생태학적 맥락에 일반적으로 적용 과거로 올라가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보존하여 구조적인 일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에서 물리적인 결정을 하여 미래의 변화를 제한 중요한 건물이나 도시골격을 보존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지만 거주자들과 생활양식을 안정시키는 목적도 있다.
복제 Repl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저히 파괴된 경우 이전의 건물을 모방하여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지역이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거나 도시조직이 모범적이거나, 그 시의 경제가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곳에서 사용
이전 Relo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일관성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거나 경제적인 타당성 때문에 행해짐

[표 2-5] 역사적 보전 유형

7) 오덕성, 문홍길, 『도시설계』 (서울: 기문당, 2000), p.180에서 발췌정리.

3. 건축문화재의 특징

문화재는 여러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시적인 형태의 유무를 기준으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건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에 포함되며 유형문화재 범주 내에서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갖는 큰 규모가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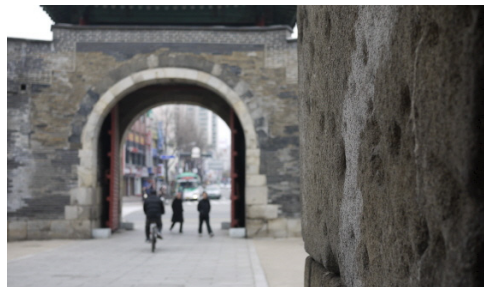
따라서 실내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운반에 유리한 작은 크기의 유형문화재와 비교했을 때 건축문화재는 필요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하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보존과 수리, 복원 등을 비롯한 유지관리가 까다롭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흔적이 그대로 문화재의 외관에 반영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역사적 의미와 느낌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건축 문화재의 변화는 곧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 변화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 생활양식의 변화, 전쟁에 의한 훼손, 부분적 수리와 보수 등과 같이 인간에 의해 변화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풍화작용 및 짧은 시간에 급격히 발생된 자연재해와 같은 자연적인 힘에 의한 지속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화성성곽에는 인간과 자연에 의한 흔적이 모두 새겨져 있으며 화성성곽 같은 경우 정조 때 축조되어 현재까지 약 6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까운 곳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축조시기가 다른 숙정문



[그림 1-5] 장안문 내 총탄흔적(6.25)

보존절차	보존추진주체	역할
1. 사업의 결정	대통령	·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결정권 행사
	문화재청	· 복원 :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결정 · 수리 : 구조안전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
	지방자치단체	· 필요 시 문화재청에 사업요청
	문화재위원회	·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고증조사 및 설계도서작성	시행청	· 실측설계업자에게 위탁 및 감독 ·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설계업자	· 고증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 ·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관계 전문가	· 고증조사
	자문회의	· 고증 및 설계에 대한 주요 사항 검토 및 결정
3. 공 사	시행청	· 보수단청업자에게 위탁 및 감독 · 자문회의의 운영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수단청업자	· 자신이 보유한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자를 동원하여 공사 실시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지도·감독하여 자신의 기술력을 발휘
	문화재수리기능자	· 자신이 가진 전통기법을 공사에 적용
	자문회의	· 공사 중 발생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및 결정
4. 보고서 작성	문화재수리기술자	· 사업의 결정부터 공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

[표 2-6] 건축문화재 보존사업 절차 및 참여주체와 역할

때문에 건축문화재는 그 자체가 갖는 심미적, 예술적 가치와 더불어 시간에 따른 변천과정과 과거사실에 대한 흔적이 문화재에 담겨있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함께 갖는다. 하지만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가치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복원 계획에 앞서 면밀한 고증과 논의가 필요하다. 건축문화재의 수리나 복원은 일반적으로 [표 2-6]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각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복원 시 중요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된다.⁸⁾

건축문화재를 다루는데 있어 위의 내용과 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갖는 것은 문화재의 규모가 클 뿐만이 아니라 복원이 완료되고 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복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8년 국보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훼손된 이후 문화재청장이 숭례문 복구⁹⁾의 기본원칙을 발표한 후에 복구공사가 시작되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지며 이 역시 건축문화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4. 건축문화재 복원의 도시적 의미

건축문화재 또한 건축물의 일종으로 공간을 이루고 도시의 일부분을 차지하며 다른 도시조직과 어우러져 도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박물관에 보존되어있는 문화재와는 차이가 있다.

복원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도시스케일의 건축문화재가 복원이 시작되면 그 주변의 공간적 상황 및 시스템 여건에 변화를 야기한다. 공사개념으로 복원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통행 시스템의 변화를 갖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복원대상에 대한 고민과 함께 건축문화재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재가 자리한 도시의 시민들이 복원 사업 기간 내에 불편이 최소화 되고, 복원으로 인한 도시적 충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8) 건축문화재 보존체계의 관점에서 본 경복궁 복원의 특성, 최종덕, 서울대학교 대학원,(2011), p.7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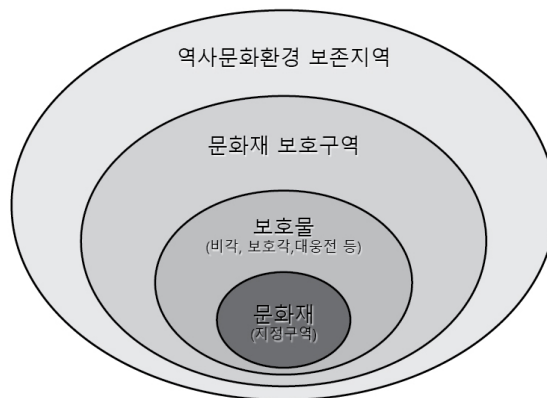
9) 숭례문은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숭례문 복구'라는 용어를 사용함. 숭례문세우기, 최종덕, 돌베개(2014), p.35

2절. 문화재 주변공간에 대한 이해

1. 문화재 주변환경의 정의

도시 내에 존재하는 건축문화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를 위한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문화재를 비롯하여 그 일대의 주변 환경을 함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문화재와 그 일대의 보호구역을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문화재’, ‘보호물’,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라는 총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로 일반적으로 문화재와 함께 문화재 자체로 인식되는 것이며,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란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



[그림 2-1] 문화재 및 주변환경의 공간적 범위

10)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전통학회지, 32권, 4호, p106 재정리

구 분	관련법률	내 용
문화재 (지정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분류되며, 지정문화재는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된다
보호물	문화재보호법 제2조 5항	보호물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로 해당문화재가 비나 불상·전적류·판각 등 동산문화재일 경우, 보호를 위해 설치한 비각이나 보호각 등을 문화재 보호물이라 한다.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 4항	보호구역을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문화재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소유자 주소·성명 순으로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 6항 문화재보호법 제13조 1항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특별히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한 지역을 동법 제13조 제1항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2-7] 문화재 관련 공간의 정의

2. 문화재 주변 공간 관리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 주변공간을 크게 문화재 관련제도와 도시계획관련제
도들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¹¹⁾

기본적으로 문화재 주변 공간은 문화재가 중심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
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관리, 보호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표2¹²⁾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재보호법 외에 문화재 주변 공간에 적용되는 법률이 존재하며,
같은 법률상에서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지구·지역들이 지정되어 한 필지에
지구·구역·지역이 중복 적용될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면밀한 법적 검토가 사
전에 필요하다.

구 분	법 률	지구·구역·지역
문화재 관련 제도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고도 보존법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 환경지구
도시계획 관련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 미관지구
		문화지구
		문화자원 보존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최고고도지구
	경관법	경관협정구역
기타제도	전통사찰 보존법	전통사찰 보존구역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지구
	관광 진흥법	관광특구

[표 2-8] 문화재 주변공간 관리 법률과 지구·구역·지역

11) “문화재 주변 도시공간의 활용을 위한 문화재 영향범위 설정 방법”, 한국도시계획학회지 2017

12) “문화재 주변 도시공간의 활용을 위한 문화재 영향범위 설정 방법”

3.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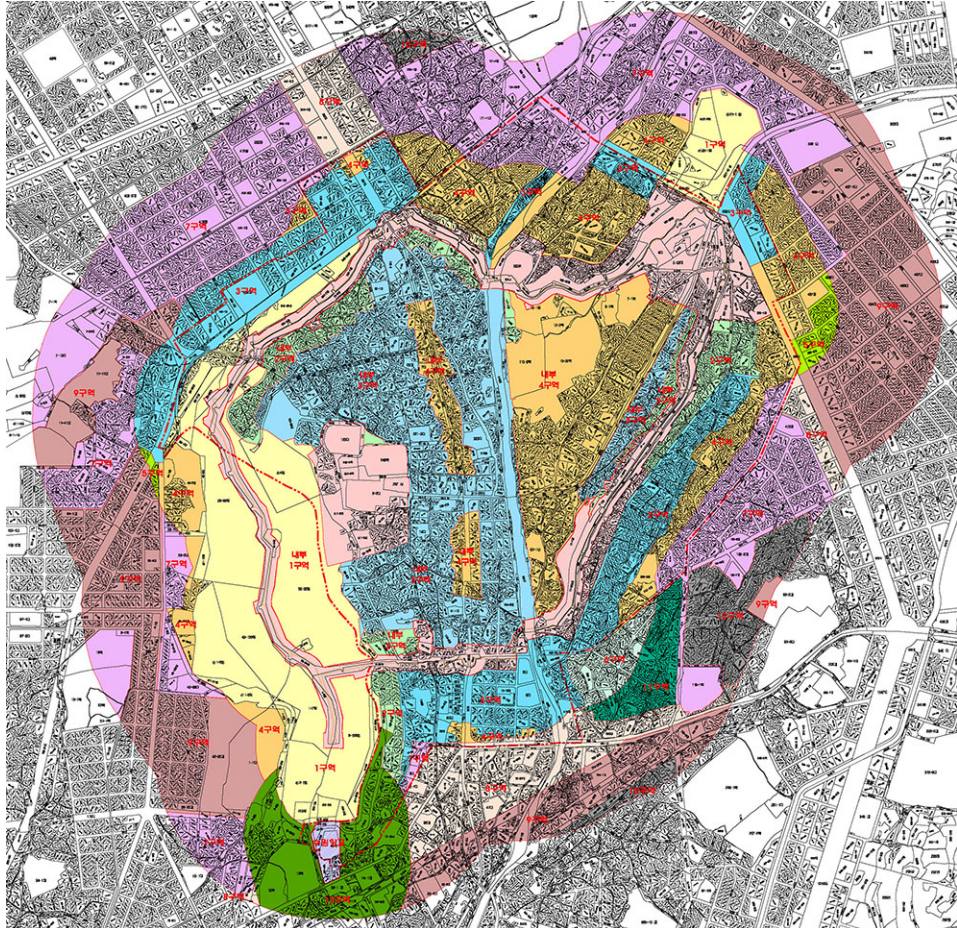
문화재와 관련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35조에 의거 문화재 자체(보호구역 포함)에 대한 행위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되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구분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으로 통칭하고 있다.¹³⁾

화성성곽은 사적 제 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개발에 제한이 있으며 성곽 내부지역과 외부지역에 따라 허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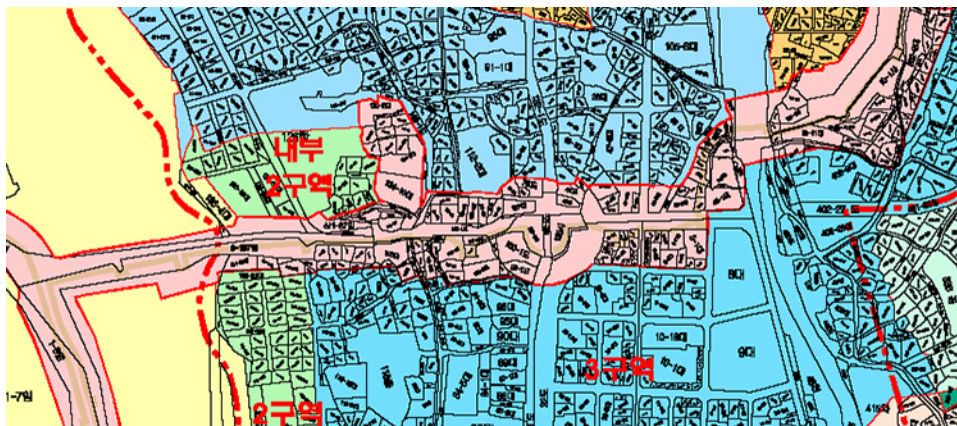
대상지 영역은 보존해야하는 성곽을 포함하여 2구역, 2구역(내부), 3구역, 3구역(내부), 4구역, 4구역(내부), 6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각 구역에 따라 높이의 제한이 있으며 구역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사항도 고려해야한다.

다만, 높이에 대한 규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주변지역의 특징이나 도시적인 맥락을 담아내는 지침이 없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13) 조흥석·박현준·박준선 2014,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권 4호, P.107.



[그림 2-2] 화성성곽의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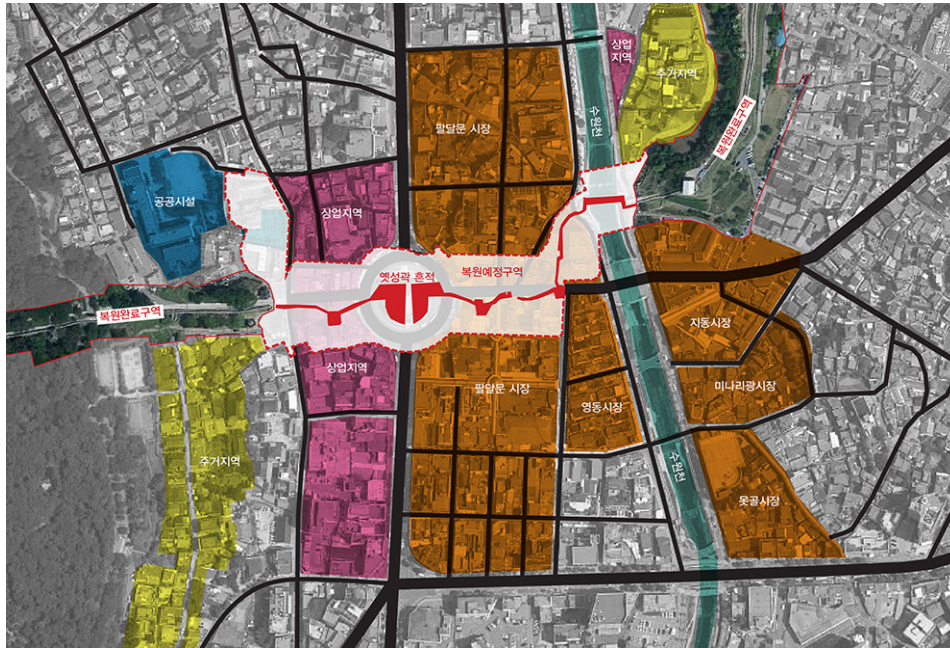
[그림 2-3]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대상지 영역)

성곽 외부지역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10:3이상)지붕	
0-20 0m이 내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최고높이 11m이하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최고높이 14m이하	최고높이 18m이하	
	5구역	최고높이 47m이하	최고높이 51m이하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득할 것
	6구역	개별현상변경신청 구역-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201- 500m 이내	7구역	최고높이 14m이하	최고높이 18m이하	
	8구역	최고높이 29m이하	최고높이 33m이하	
	9구역	최고높이 47m이하	최고높이 51m이하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득할 것
	10구역	현상변경 기승인 구역 - 기승인 층수를 따름		
	11구역	개별 현상변경신청 구역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12구역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 름		
성곽 내부지역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최고높이 12m이하-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 사항	<div>-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div> <div>- 기본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div> <div>- 건축물 최고 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 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div> <div>- 공공의 이익 및 편의 등을 위한 시설물(도로 및 공원 등) 및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함</div>			

[표 2-9]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사적 제 3호 확성)

3절. 성곽복원계획의 도시적 쟁점

1. 상업지역과 성곽복원계획



[그림 2-4] 미복원 구간 주변 상권현황

대상지가 되는 미복원 구간(남치-남수문 구간)은 팔달문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형 상업지역이 자리하고 있어 선행된 화성성곽의 복원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복원이 실행된 화성성곽은 복원구간과 도시가 마주하는 부분들이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컨텍스트를 갖고 있었고, 이미 성곽과 도시사이에 완충공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반면에 미복원 구간(남치-남수문구간)은 완충공간의 부재와 상업시설들이 밀집하고 있어 해결이 필요한 다양한 도시의 입장들이 존재한다.

팔달문 주변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변과 연동되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형성되어있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업지역을 이용하기 위해 찾는 이용객 중심의 네트워크와 대상지 주변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이용하는 근거리 네트워크부터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광역적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또한, 상업지역의 물류를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못골시장 총 5개의 전통시장이 밀집되어있으며 각 시장별 주된 취급 품목들과 시장의 성격에 따라 다른 물류시스템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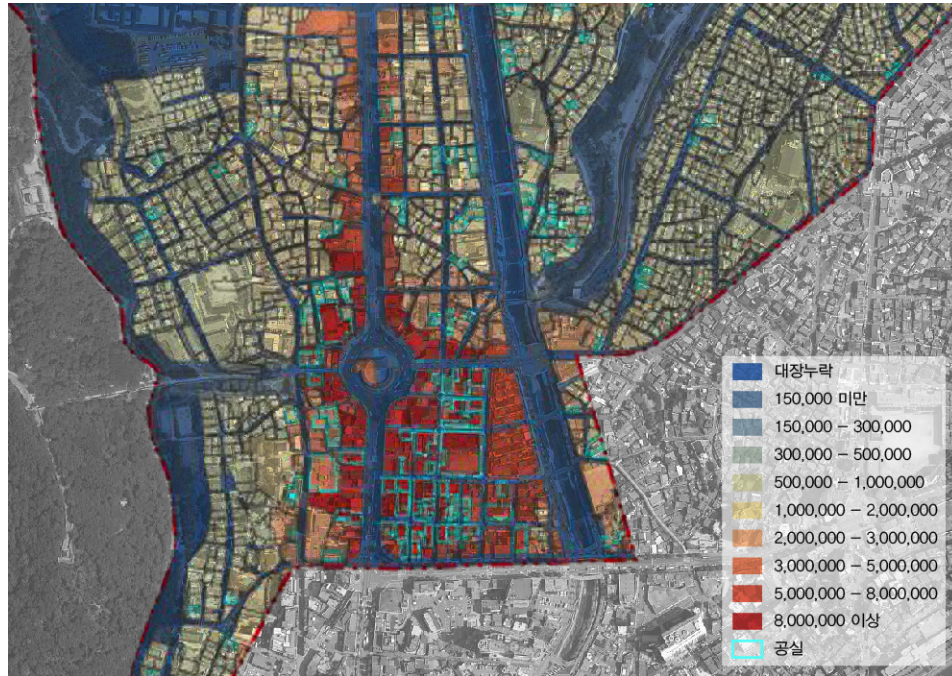
시장명	주요 취급 품목
팔달문 시장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생활소품 및 잡화
영동시장	주단, 포목, 커튼 의류 및 패션, 생활잡화
지동시장	수산물, 정육등의 식품, 식당가(순대타운)
미나리광시장	곡물, 채소, 인삼, 수산물 등
못골시장	채소, 과일등의 식품 및 떡, 반찬등의 가공식품

[표 2-10] 시장별 주요 취급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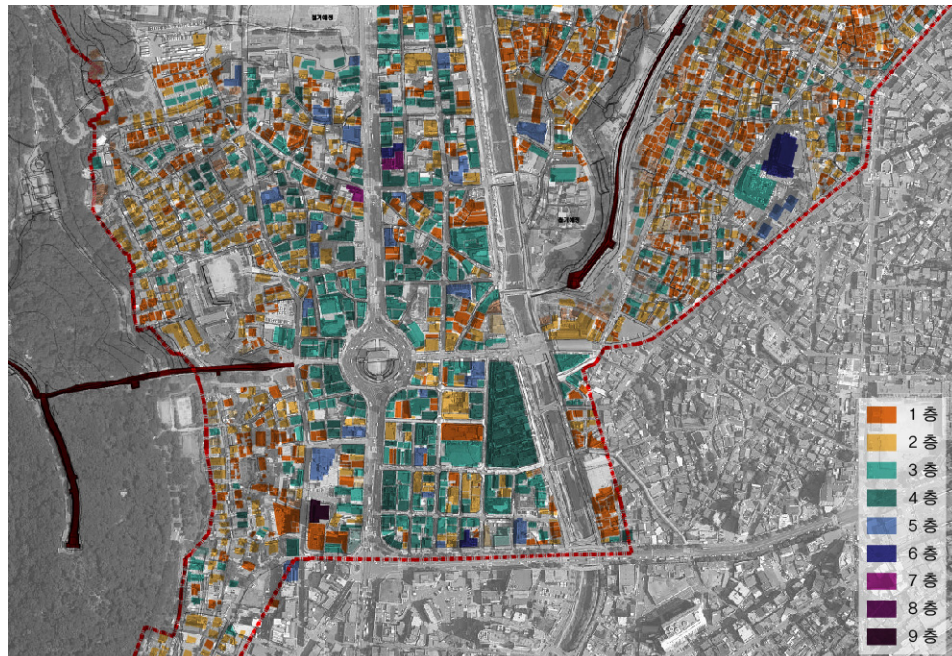
대상지 구간의 복원이 선행된 다른 구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원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들의 단절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것은 복원계획 수립 시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상업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복원이 진행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첫째, 대상지 주변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행궁동의 다른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편으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5] 팔달문 주변 공시지가



[그림 2-6] 팔달문 주변 건축물 층수현황

둘째, 토지매입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층고가 높은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할 경우 철거 및 주변지역을 정비 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시민의 불편도 동반된다.

셋째,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권이 이동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상업지역은 그 특성상 일정지역에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업시설이 파편적으로 위치하는 것보다 상업행위에 있어 유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팔달문 주변 시장 상권이 총 5개의 전통시장과 일반적인 도시의 상업지역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대규모의 상권이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대안으로 순차적으로 이주한다고 해도 지금 상권의 영향력이 깨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원시 내에는 이러한 대규모의 상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힘들다. 상권이라는 것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비를 필요로 하는 주변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주변지역의 요구에 따라 상권이 변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경우 이전의 모습으로 유지되기 힘들며 상권이 이주하여 실패한 경우로 청계천의 상권이 문정동 가든파이프로 이주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행궁동 지역은 수원시가 시작된 장소로 정체성에 대한 의미가 크게 자리하는 장소이다. 팔달문 시장은 이미 수원의 대표적인 시장인 동시에 명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화성성곽을 관람하기 위해 수원을 찾는 관광객만큼이나 시장으로 유치되는 관광객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의 상징으로서도 그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과 복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약 5.7km의 코스와 연결되는 상업지역은 화성성곽으로 유치된 관광객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2. 성곽복원방식에 대한 접근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팔달문 주변은 재래시장상권과 맞닿은 상업지역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장소이다. 하지만, 복원에 대한 형태와 방식에 대한 논의 없이 과거 특정시대의 형태를 재현하는 방식의 복원이 실행된다면 오히려 지금의 팔달문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역사유산은 도시적 풍경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일조하여야 한다. 동시에 물리적인 성벽은 다가오는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의미 프로그램, 기능, 공약으로 물들어 있어야 한다.¹⁴⁾

과거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복원되는 것은 테마파크에 가까운 개념으로 실제로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는 열악한 부분이 존재한다.

역사를 위한 도시가 아닌 도시를 위한 역사로 과거로부터 이어온 물리적, 인문적 환경에 현대적 생활패턴이 반영되어 시간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도시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복원이라는 개념에 한정되어 있기보다 성곽이 현재 도시 상황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아 적용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장소와 결합되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을 선별하고 디자인하여 미복원 구간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복원이 완료된 성곽구간들을 검토한 결과 성곽을 중심으로 양쪽에 녹지, 동선이 배치되는 형태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배치는 현재 대상지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녹지를 배제하고 상권으로 인해 많은 건축물들이 지나는 여건 속에서 단절된 구간을 연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4) 서울성곽, 그 경계를 넘어 박진호 2010



[그림 2-7] 화서문 - 장안문 구간



[그림 2-8] 봉돈 - 동남각루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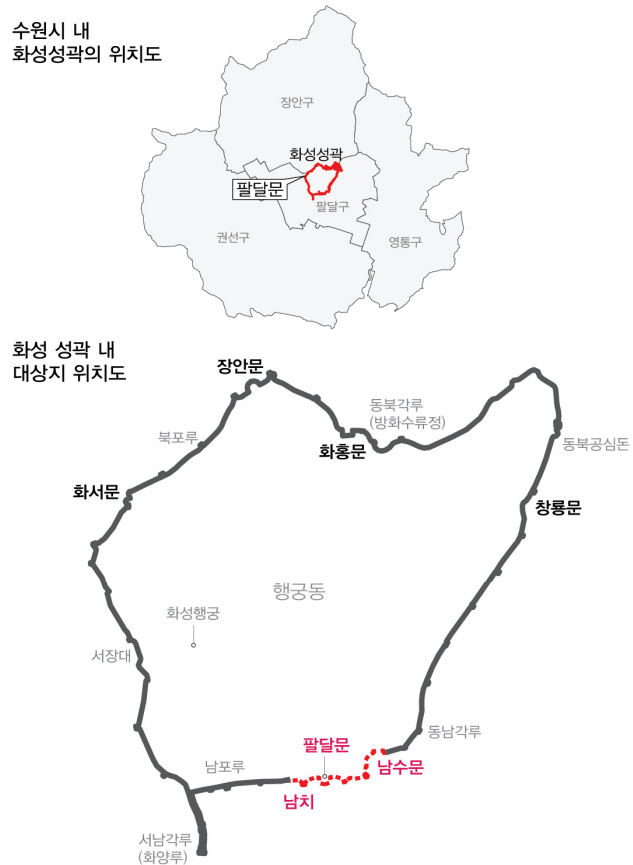
[그림 2-9] 장안문 - 동북공심돈 구간

제3장 설계여건분석

1절. 대상지 개요

1. 대상지 위치

설계의 대상지는 수원시 행궁동에 위치한 화성성곽의 일부로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유일하게 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남치 - 남수문 구간이다.



[그림 3-1] 대상지 위치도

2. 화성성곽의 이해

화성은 정조에 의해 건설된 신도시로 화성성곽은 신도시가 건설된 지 5년 후인 1754년(정조18년)에 시작하여 1796년에 완공되었다. 축성 이후 19세기까지는 고을수령의 책임 하에 유지보수¹⁵⁾가 꾸준히 이루어지다가 20세기 일제강점기로 인하여 많은 곳이 방치되고 훼손되었다. 더불어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성곽일대가 폭격으로 많은 부분이 손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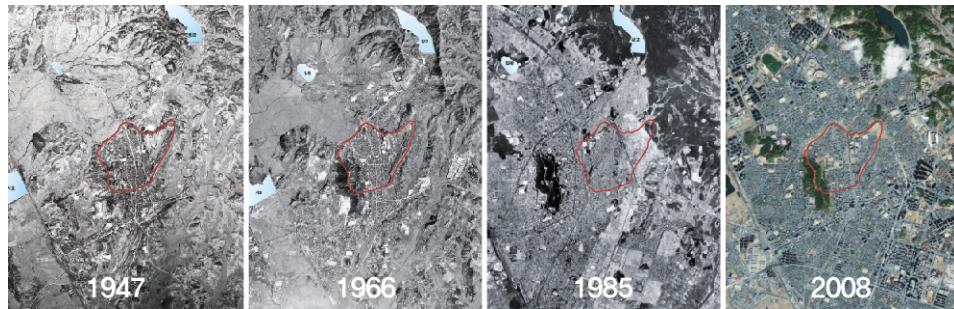
[그림 3-2] 한국전쟁당시 파괴된 화성성곽

이후 1964년부터 부분적인 수리가 이루어지다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화성복원정비사업으로 대대적으로 복원, 수리되었다. 70년대 이루어진 복원을 기반으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화성은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화성복원정비사업을 마친 1979년도 이후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인구가 80 만 이상으로 늘어나고 도시의 면적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흐름 속에서 화성성곽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구분 짓는 경계가 되었다. [그림3-3]을 살펴보면

15) 19세기 주요한 수리공사는 1848년(헌종14)과 그 이듬해에 있었다. 1848년 화홍문, 복수문, 매향교, 남창교 등이 다시 건설되었고 팔달문, 각건대, 방화수류정, 남암문, 서장대, 서포루가 전면적으로 수리되었다. 1849년에 화성성곽의 여장부분의 상당부를 다시 쌓고 암문의 일부도 수리하였다.

1947년 까지는 화성성곽이 도시의 경계부에 위치하다가 수원시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도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화성성곽이 울타리 역할을 하여 화성성곽 내 구시가지(행궁동)는 수원시 내에서 격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림 3-3] 수원시 변화과정



[그림 3-4] 과거와 현재의 행궁동 모습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러한 구시가지의 격리가 과거의 흔적을 유지시켜 성곽 내 도시의 골격이 정조가 계획했던 당시의 모습으로 잘 유지되어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으나 성곽으로 인한 구시가지(행궁동)의 격리는 도시의 영향력, 네트워크 등을 함께 단절시켜 구시가지의 쇠퇴를 야기하였다.

이것은 화성성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없다면 구시가지는 지속적으로 쇠퇴하게 될 것이다. 성곽은 문화재로도 큰 의미를 갖지만 도시적, 경제적, 사회적 인 다양한 측면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성곽을 다루는 문제는 곧 구시가지(행궁동)의 쇠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동시에 화성성곽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에 계획된 최초의 계획도시라는 점과 화성성역의례를 기반으로 성곽의 원형이 그대로 복원되어있어 2016년 한해 화성을 보기위해 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으로만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3. 화성 성곽 복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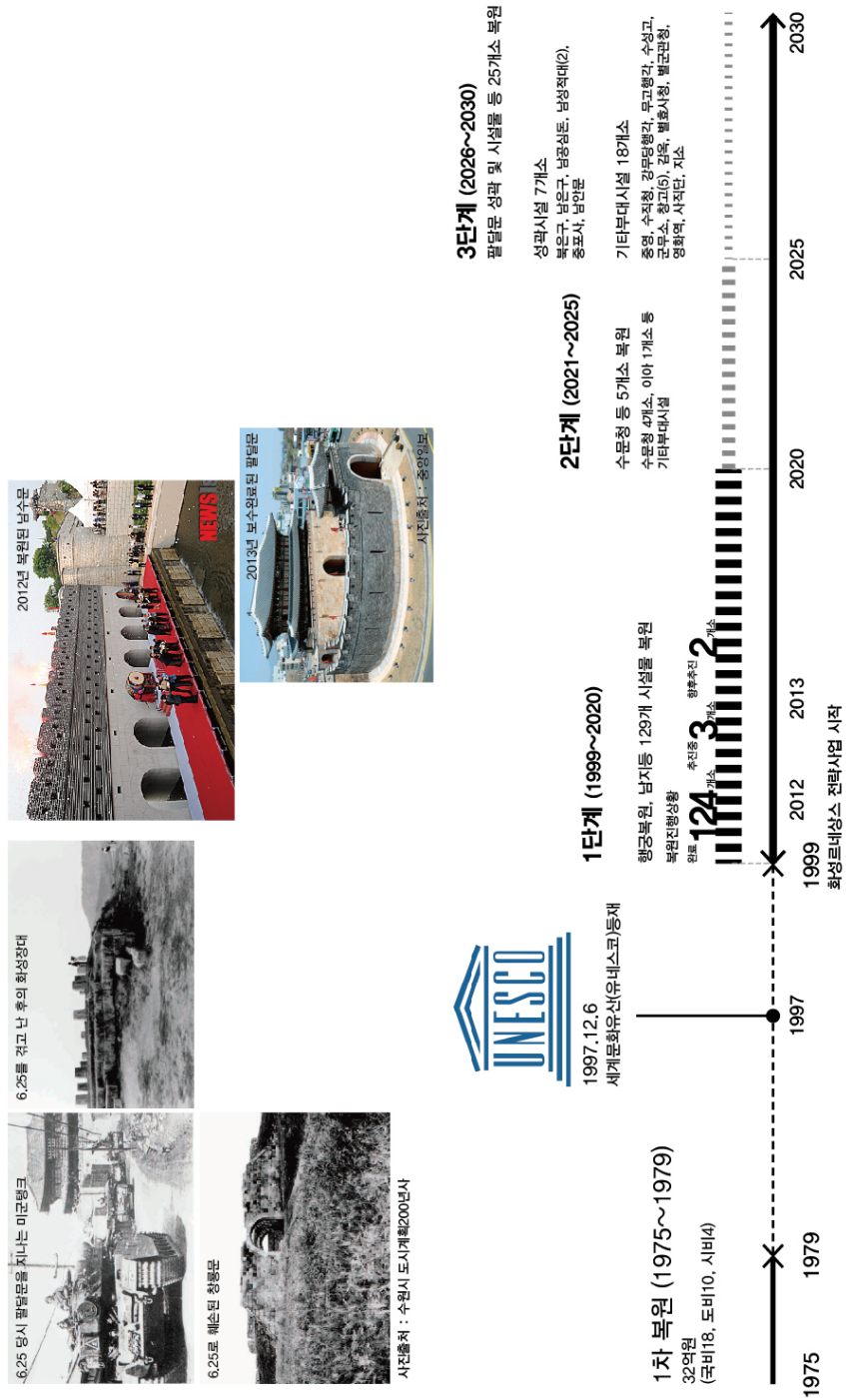
화성 복원 및 정비 사업은 조선이 몰락한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크게 훼손되면서 1964년에 복원사업이 시작되어 197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1차 복원사업이 실행된 이후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복원, 정비를 실행하였고 그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복원사업의 성과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복원되었다. 최근에 남수문이 복원되었으며 성곽도 팔달문 주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복원이 완료되었다.

설계의 대상이 되는 팔달문 주변 미복원 구간은 향후 계획에서도 마지막인 3단계로 예정되어 있다. 이것은 현 대상지의 여건이 단기간에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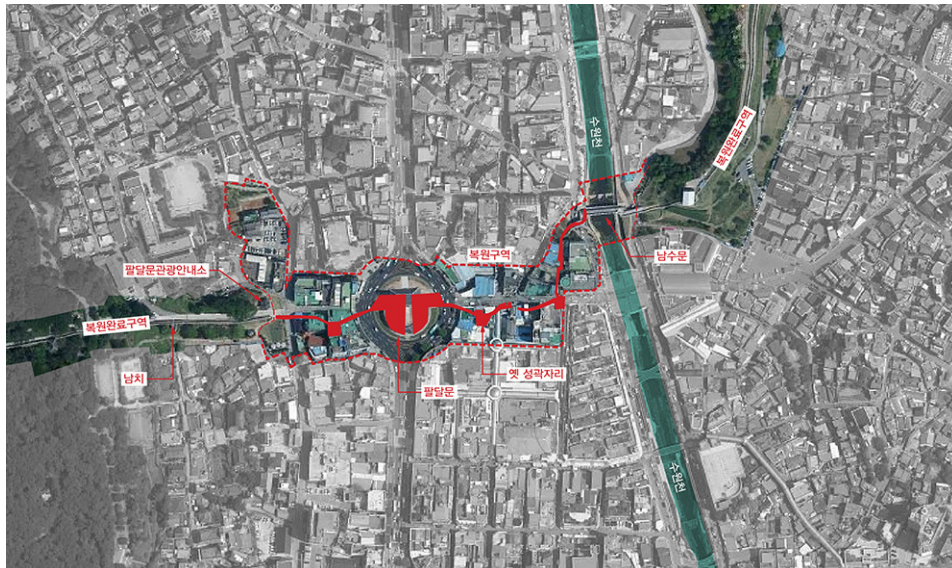
[그림 3-5] 화성성역의례



[그림 3-6] 화성성곽복원연혁

4. 대상지 현황

대상지는 화성 성곽 복원의 마지막이 되는 구간으로 그 중심에는 팔달문이 있으며 좌측이 남치, 우측 남수문이 위치한다. 남치 주변에 팔달문 관광안내소가 있으며 [그림3-7]에서 붉은색 점선으로 표현된 구역은 문화재 현상변경에서 제시되어있는 복원구역을 반영하여 복원 사업 진행 시 예상되는 복원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예상 복원구역 내에는 대부분 도로와 건축물로 구성되어있으며 건축물들은 대부분이 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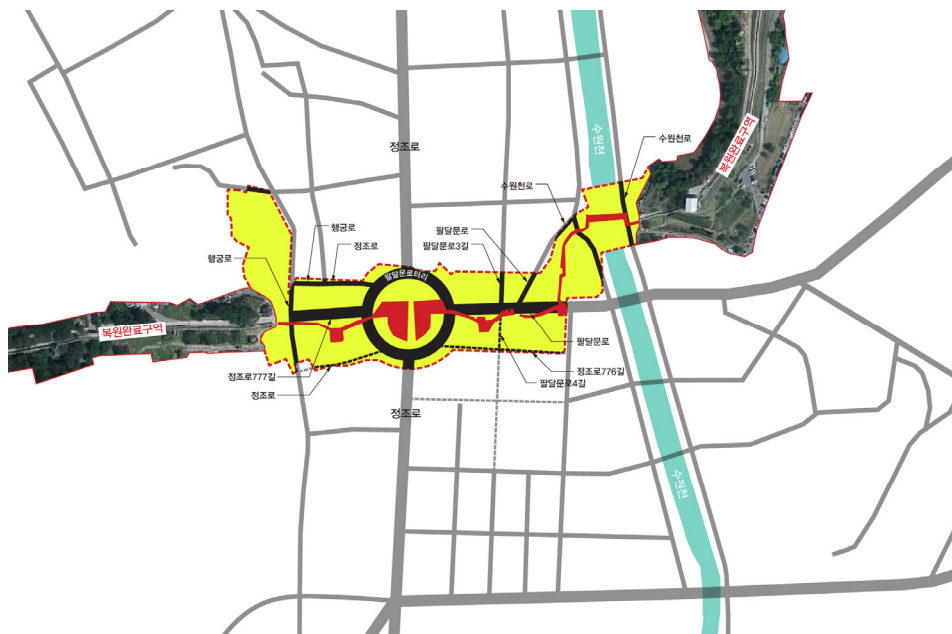
[그림 3-7] 대상지 현황

1) 교통 및 도로현황

화성의 남문인 팔달문은 성곽의 남쪽에서 내부로 진입하는데 가장 큰 도로로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은 편이며 로터리 형태의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로터리방식의 특성상 팔달문을 주변을 원형으로 도로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팔달문은 일종의 교통섬이 되어 도시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도시와 팔달문의 단절 뿐 만 아니라 대상지 내에서 도시간의 단절도 갖게 한다. 로터리 교통체계는 팔달문 주변 상권 간의 접근성이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상지 내에는 행궁로, 정조로, 정조로 776길, 정조로 777길, 팔달문 로터리, 팔달문로, 팔달문로 3길, 팔달문로 4길, 수원천로와 같은 총 9개의 도로가 존재하는데 [그림 3-8]에서 점선으로 표현된 구간은 보행 전용도로이며 나머지는 보행과 차량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로이다.



[그림 3-8] 대상지 주변 도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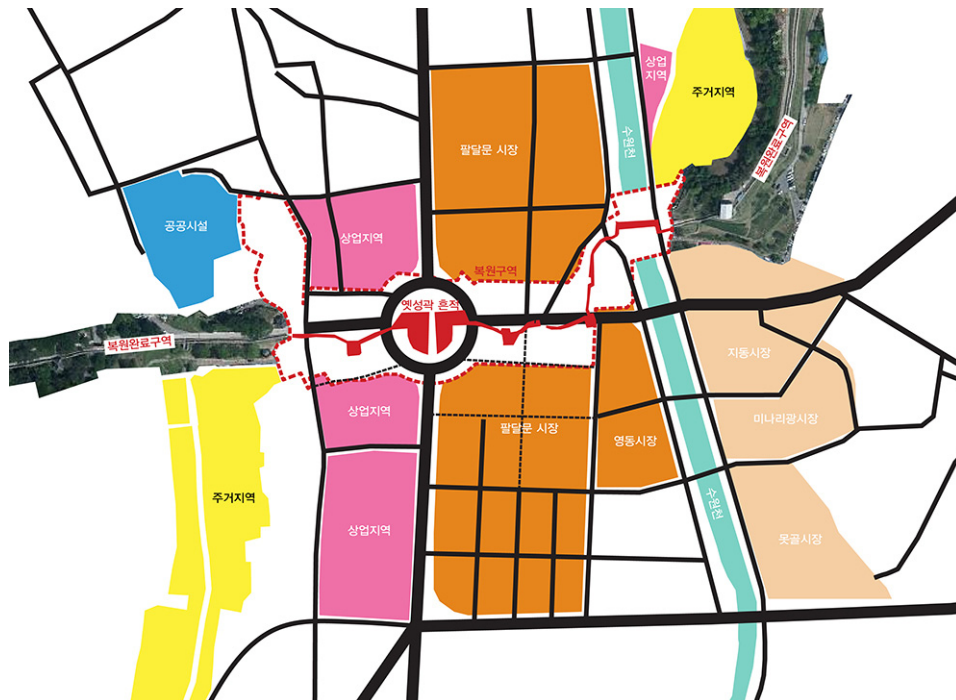
2) 토지이용현황

대상지와 주변의 토지이용은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림 3-9] 상에서 팔달문과 정조로를 기준으로 좌측은 일반적인 상업지역이며 우측은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지동시장, 미나리광 시장, 못골시장으로 이루어진 전통시장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이 전통시장 지역은 화성이 축조 당시부터 형성된 상권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대상지 주변 상권을 벗어나면 이미 성곽 복원이 완료된 지역에 녹지가 존재하며 주거지역이 일부 나타나고 남치주변 남창초등학교가 위치한다.

대상지는 다양한 토지이용을 보이기보다 상업지역이 주를 이루는 단순한 구성을 갖고 있지만 상업지역의 특성상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아 복원사업으로 인해 흐름이 끊기게 되면 많은 불편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3-9] 대상지 주변 토지이용현황

3) 건축물 현황

대상지 내부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고층인 건물이 4층 건물로 대체로 낮은 층고의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림3-10]을 참고하였을 때 팔달문 기준 우측에 높은 층고의 건축물들이 분포하여 있다. 건축시기로는 1959년 이전의 건축물부터 2000년 이후 건축물까지 존재한다.



[그림 3-10] 건축물 층수 현황

4) 장안문 복원 사례를 통한 팔달문 예상 시나리오

대상지 내의 팔달문에 대한 복원에 앞서 먼저 복원사업이 실행된 장안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11] 장안문 복원 계획

출처 : 동아일보 기사 발췌 (2006년 4월 6일)

복원 전 장안문 역시 [그림 3-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의 팔달문과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교통섬으로 도시와 분리되어 있었으나 2006년 진행된 성곽복원사업으로 단절되어있던 동선이 연계되었다. 그로 인해 로터리방식에서 사거리방식으로 교통체계가 바뀌었으며, 복원으로 연결된 동선은 화성성곽을 방문한 관광객이 본래의 방식으로 장안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장안문 및 성곽길과 같은 복원이 완료된 구간들을 살펴해보았을 때 대상지의 복원 예상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성곽복원으로 팔달문 주변의 교통체계가 로터리 방식에서 사거리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복원된 성곽은 그동안 연결되지 않았던 도시와 팔달

문을 잇고 나아가 동-서를 연결하는 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축을 중심으로 도시와 성곽사이에 녹지가 형성되어 현재 복원된 성곽주변의 녹지축을 있게 될 것이며 녹지와 도시사이에 도로가 자리하는 도시 상이 예상된다.

이것은 그동안 끊겨있던 동-서를 연결하고 성곽을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재 수원의 일상이 담겨있는 장소가 사라지는 문제점 또한 발생하는 결과를 갖는다.



[그림 3-12] 장안문 복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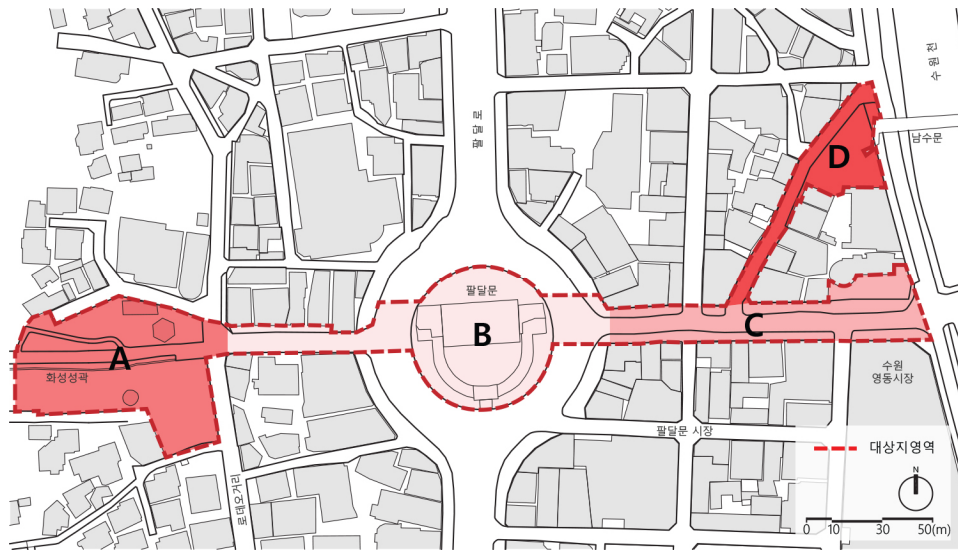
[그림 3-13] 장안문 복원 후



[그림 3-14] 팔달문 복원 예상 시나리오

2절. 대상지 분석

1. 구간별 대상지 개요



[그림 3-15] 대상지 구간 분류

대상지는 연장길이 약 360m의 선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가늘고 긴 선형 공간의 형태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주변의 여러 맥락을 관통하고 있다. 때문에 대상지를 분석할 때 대상지가 도시와 만나는 부분이 갖는 특징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다.

총 A, B, C, D의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A와 D 구간은 복원된 화성 성곽과 도시가 만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대상지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공간으로 화성 성곽과 도시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지와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설계가 진행될 때에도 이 공간이 조성되는 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둘째로, B 구간은 현재 로터리 방식의 교통 시스템으로 거대한 교통섬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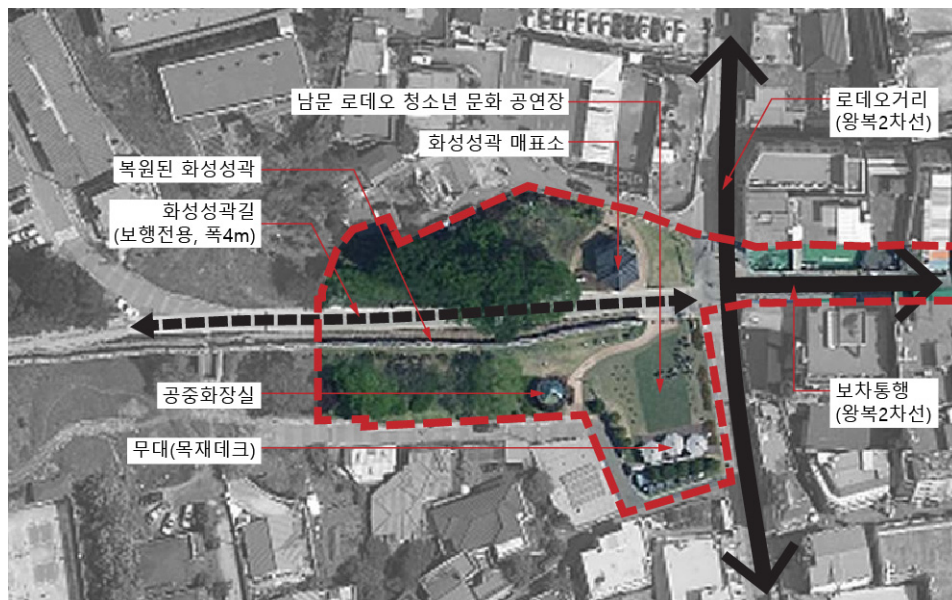
어버린 팔달문이 위치한 구간이다. B 구간의 현황을 분석하여 교통섬으로 존재하는 팔달문이 도시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C 구간은 팔달문 시장이 중심이 되는 전통시장상권으로 상인들에 의한 공간의 활용현황을 비롯하여 시장 방문객들의 행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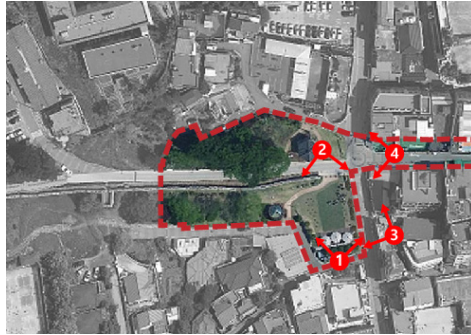
2. A 구간 (남문 로데오 청소년 문화공연장)

A구간은 현재 남문 로데오 청소년 문화공연장이란 명칭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용하는 대상은 청소년 이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복원된 화성성곽의 끝단이 있는 구역과 동시에 남문 로데오 청소년 문화공연장이 있는 오픈스페이스로 시설로는 화성성곽 매표소와 공중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들이 배치되어있다. 공간의 명칭이 ‘남문 로데오 청소년 문화공연장’ 인 만큼 공간의 구성은 목재데크로 이루어진 무대와 잔디로 이루어져 있어 공연 시에는 관람석의 역할을 하며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모여 휴식과 여가가 이루어지는 공원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현재 시민들의 이용행태를 관찰하였을 때 조성된 휴게시설(의자)외에 앉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더불어 휴게시설의 배치 또한 공간의 외곽에 배치되어있어 전체적인 공간의 구성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림 3-16] A 구간 현황



[그림 3-17] 현황사진 위치



[그림 3-18] A구간 토지이용현황



[그림 3-19] 무대에서 본 오픈스페이스와 화성성곽(1번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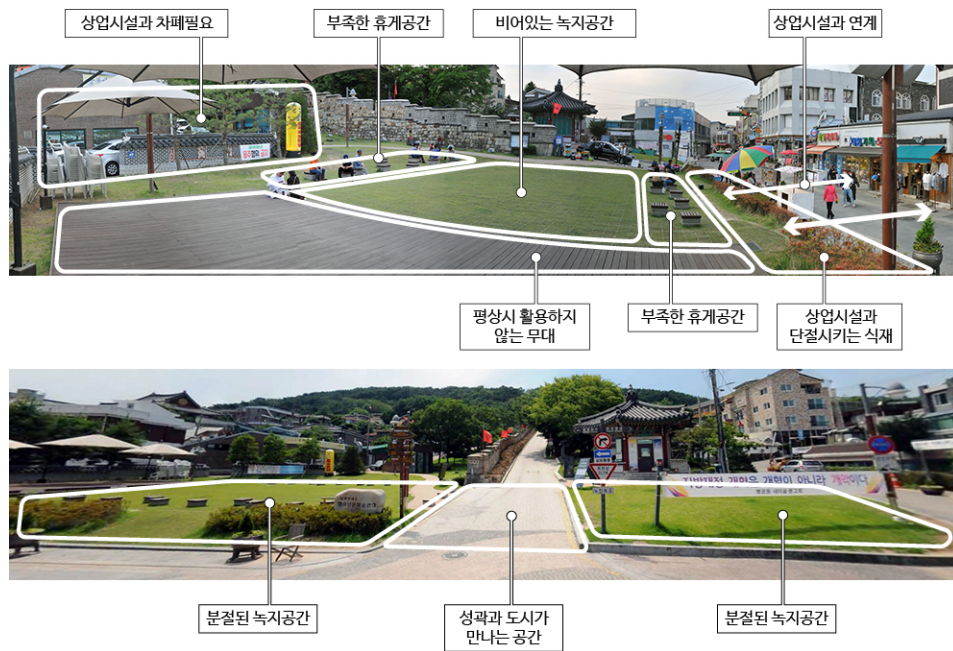
[그림 3-20] 성곽에서 본 오픈스페이스(2번 위치)



[그림 3-21] A구간과 마주하는 상업거리(3번 위치)



[그림 3-22] 팔달문측에서 본 A구간(4번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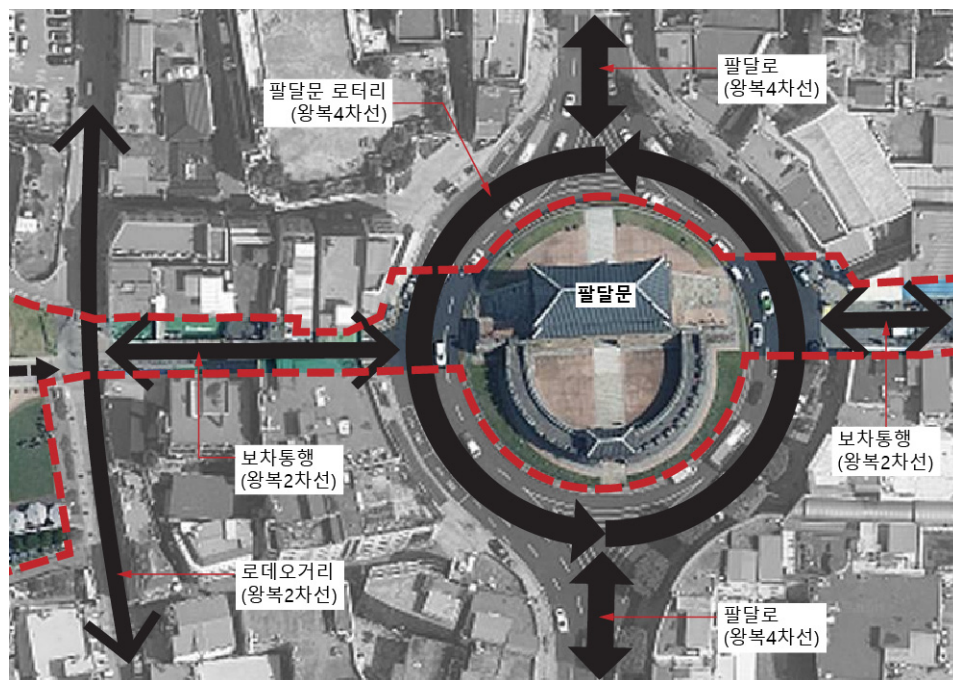


[그림 3-23] A구간 공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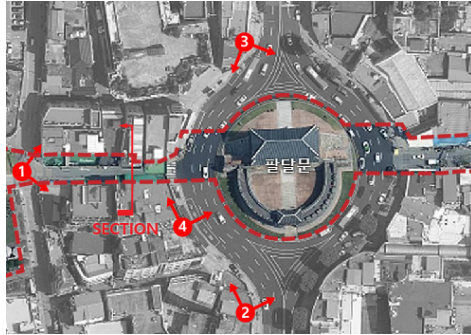
3. B 구간 (상업거리와 팔달문 로터리)

B 구간은 남치에서 팔달문 로터리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폭7.5m에 길이는 약60m의 구간이다. B 구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로터리 교통 시스템을 갖고 있어 팔달문이 하나의 거대한 교통섬으로 존재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로터리는 장안문에서 팔달문까지 행궁동을 가로지르는 정조로로 연결되어 차량의 통행량도 상당히 많은 편으로 구도심 내에서 상습적인 정체 구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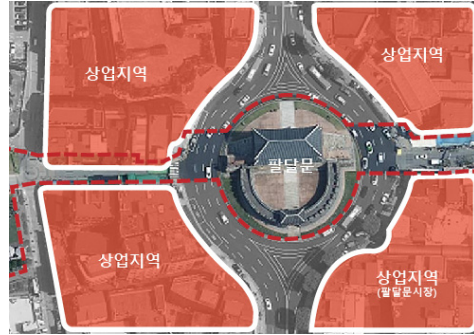
다음 특징으로 팔달문을 중심으로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팔달문 기준 오른쪽은 팔달문 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상권이며, 왼쪽으로는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리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그림 3-24] B 구간 현황



[그림 3-25] 현황사진 및 단면도 위치



[그림 3-26] B 구간 토지이용현황



[그림 3-27] 성곽(남치)방면에서 바라본 팔달문(1번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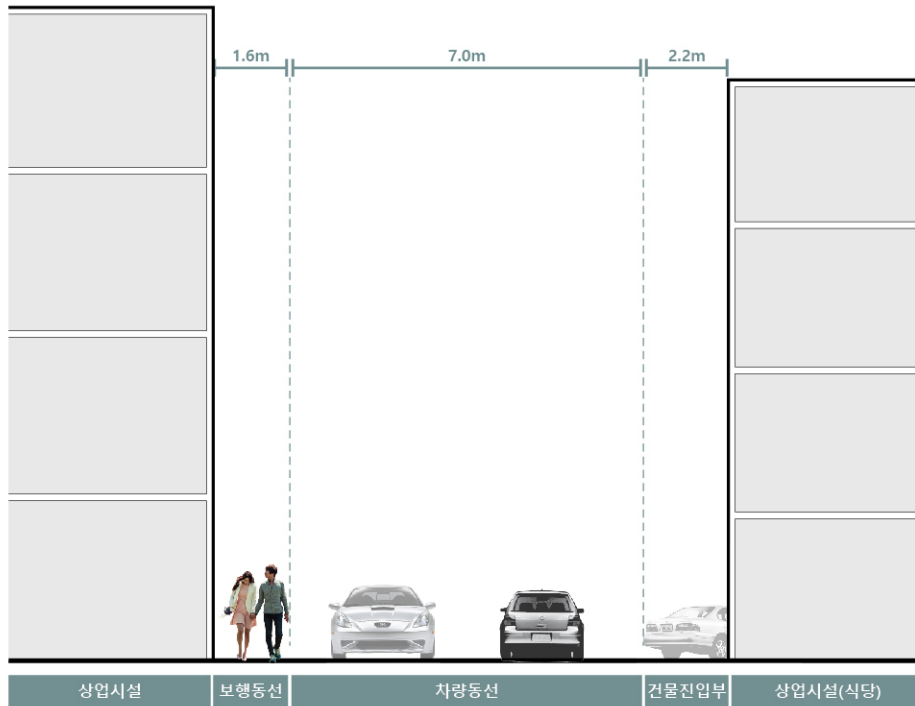
[그림 3-28] 팔달문 전경(2번 위치)



[그림 3-29] 팔달문 전경(3번 위치)



[그림 3-30] 상업거리와 팔달문이 만나는 부분(4번 위치)



[그림 3-31] B 구간 역사길 현황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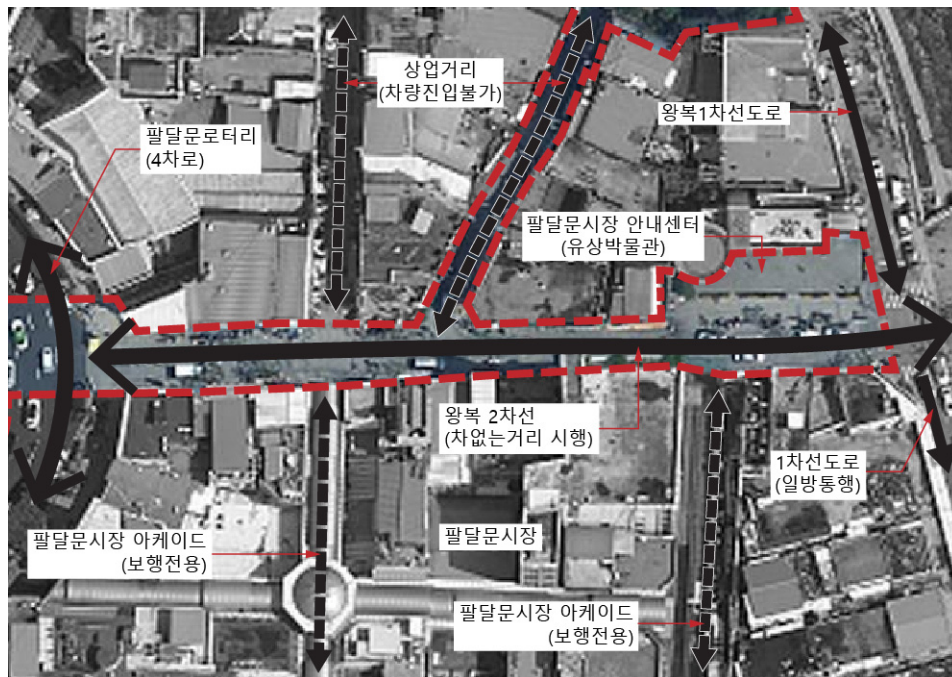
끝으로 여러 노선의 버스가 팔달문 로터리를 경유하는데 주로 수원시내버스가 주 노선이고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버스노선이 일부 경유하고 있다.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면 B 구간은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인 로터리 시스템을 갖는 도로에 여러 노선의 버스가 경유하는 구간으로 많은 양의 유동인구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차량과 보행 모두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4. C 구간 (팔달문 시장길)

C 구간은 팔달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거리로 길을 따라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등 수원의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C 구간은 이러한 전통시장으로 들어서는 가장 큰 도로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그림 3-32] C 구간 현황



[그림 3-33] 현황사진 및 단면도 위치



[그림 3-34] C 구간 토지이용현황



[그림 3-35] 영동 아케이드 입구(2번 위치)



[그림 3-36] 상업거리 입구(3번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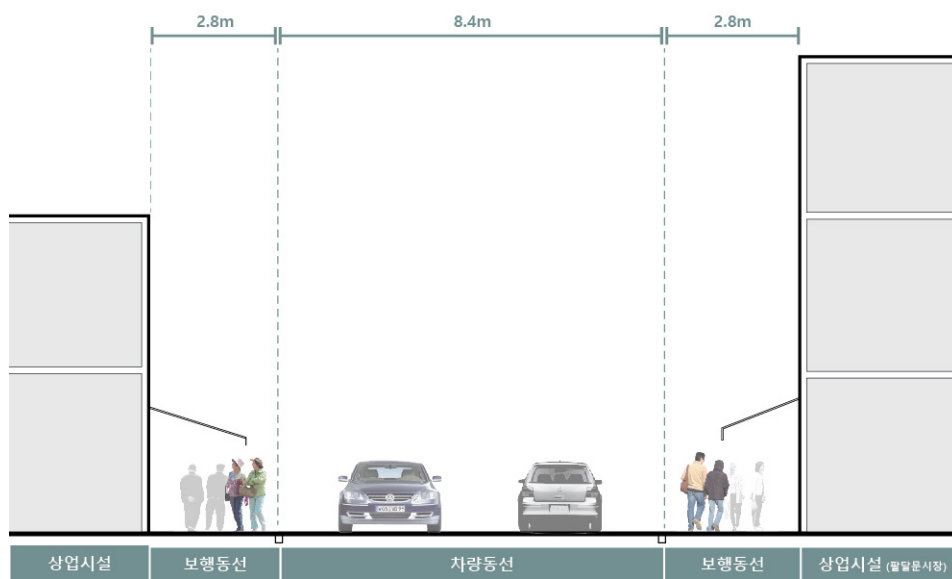
[그림 3-37] 상업거리 입구(4번 위치)



[그림 3-38] 팔달문 아케이드 입구(5번 위치)



[그림 3-39] 시장거리 전경(1번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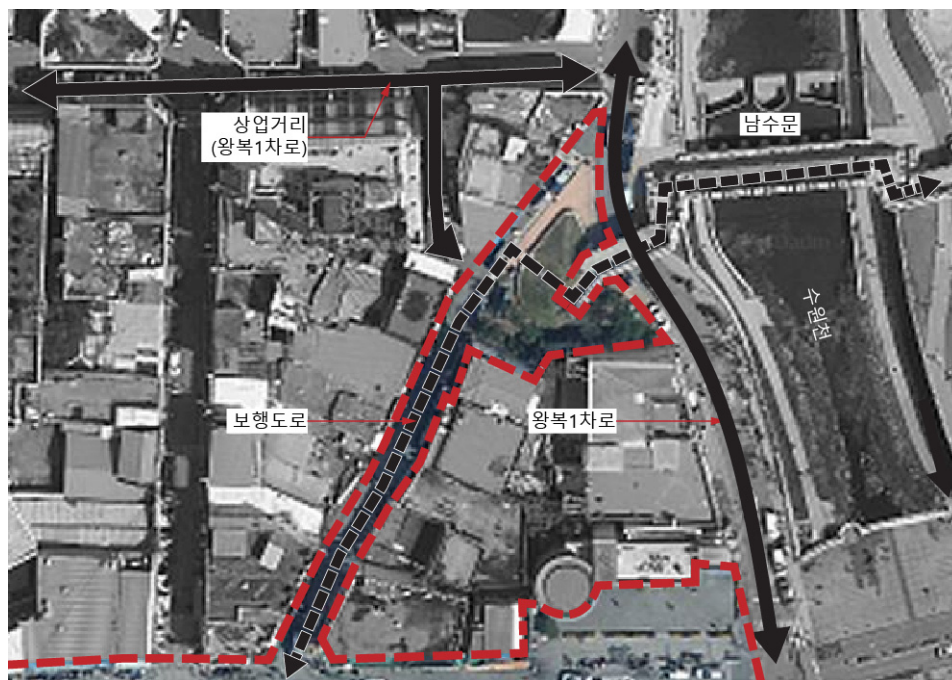


[그림 3-40] C 구간 시장거리 현황 단면도

5. D구간 (남수문 연결구간)

D 구간은 A 구간에 이어 남수문까지 복원이 완료된 화성 성곽과 도시가 마주하는 구간이다. 다만, A 구간과 차이점을 갖는 것은 A 구간은 주변에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업가로가 형성이 되어있어 어느 때나 일정량의 유동 인구가 존재하고 그로인해 성곽 주변에 문화 공연장 형태의 오픈스페이스도 존재하여 공간의 활용도가 많은 구간이었다. 반면에, D 구간은 성곽이 끝나는 부분은 주차공간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었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도로와 마주하는 건물 1층이 대부분 음식점으로 이곳에서 놓은 화분과 입간판 등이 도로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그림 3-41] D 구간 현황



[그림 3-42] 현황사진 및 단면도 위치



[그림 3-43] C 구간 토지이용현황



[그림 3-44] D 구간 골목 내 상업시설(1번 위치)



[그림 3-45] D 구간 골목 내 상업시설 2(2번 위치)



[그림 3-46] 복원 성곽과 상업거리 진입부(3번 위치)



[그림 3-47] 남수문 복원 지점



[그림 3-48] 건축물과 복원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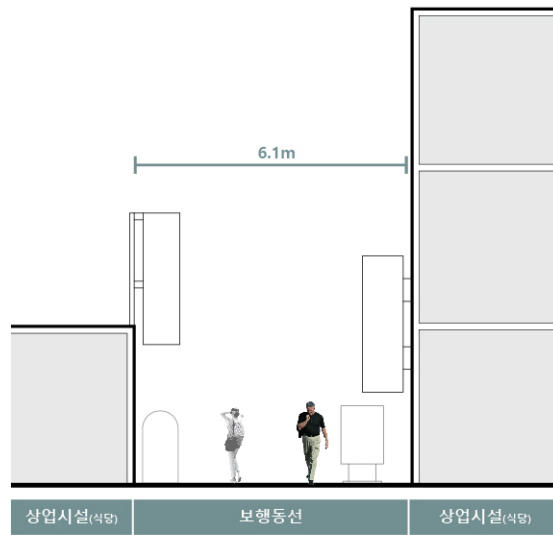
[그림 3-49] 방치된 성곽 주변



[그림 3-50] 건축물과 복원된 성곽



[그림 3-51] 성곽에서 내려 본 보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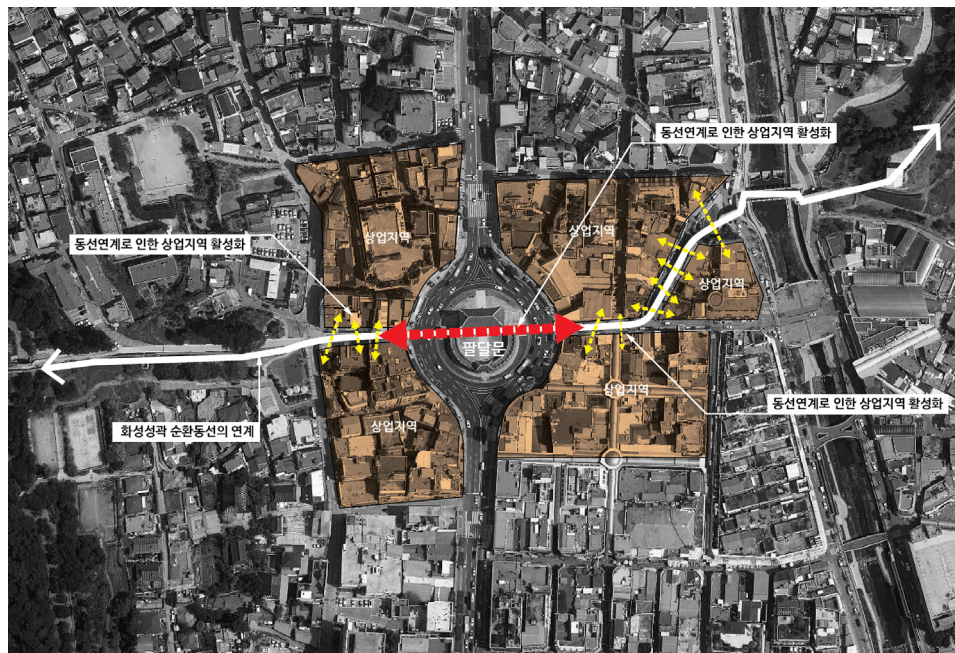


[그림 3-52] D 구간 골목 현황 단면

제 4장 기본계획 및 설계

1절. 기본계획

1. 계획의 방향



[그림 4-1] 계획의 방향

본 설계에서 다루는 성곽 미복원 구간 설계의 가장 큰 핵심은 성곽이 하나로 순환되는 동선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이용객들이 화성성곽이 원래의 모습대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느꼈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끊어져있는 성곽의 동선이 지금의 도시 컨텍스트를 통과하여 연결되면 기존의 상권을 이용하는 대상과는 다른 형태의 상권 이용객(성곽을 이용하는 탐방객)이 추가되어 현재 자리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업지역이 지금

보다 더욱 많은 이용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안하는 성곽길과 기존상권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곽의 미복원으로 인해 단절된 성곽길을 연계하기 위해 조성되는 공간은 단절된 구간을 물리적으로 이어주는 것에 더하여 성곽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상업시설 이용객들에게 휴게공간과 좋은 외부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설계가 요구되는 공간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으로 다소 혼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혼잡을 최소화시키는 공간계획을 필요로 한다.

지금의 모습에서 팔달문은 도시 내 실질적인 생활영역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단절된 성곽길의 연계로 인해 도시와 팔달문이 이어지게 되면 시민과 이용객들에게 팔달문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동시대의 도시조직과 형태를 해치지 않으면서 복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의 기본조건이며 단절된 동선을 연계하고 현재 도시조직과 마찰 없이 작동되도록 하는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기본공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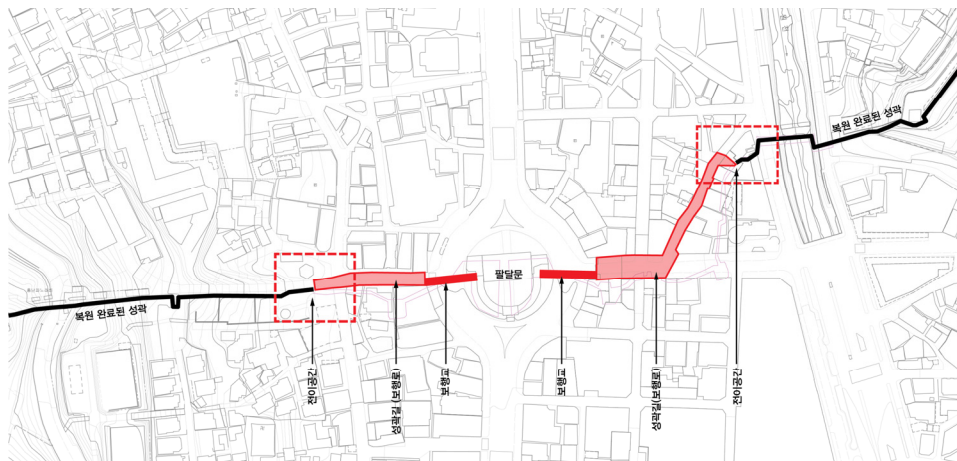
대상지는 공간이 갖는 성격에 따라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이공간, 팔달문, 시장선형공원은 거점으로 조성하여 거점을 잇는 성곽길이 효과적이고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첫째로, 팔달문 주변 시장과 성곽길이 복원되는 공간([그림 4-2]에서 붉은색 영역) - 과거에 존재했던 성곽의 조건을 재해석하여 생성되는 동선으로 이용자들에게 성곽이 있었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화성성곽을 걷는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성곽을 걷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팔달문과 도시를 잇는 보행교([그림 4-2]에서 붉은색 선형부분) - 팔달문과 도시를 보행교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연결한다. 이것은 단절되어 있던 화성성곽의 동선을 연결함과 동시에 팔달문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진 양쪽의 상업지역을 연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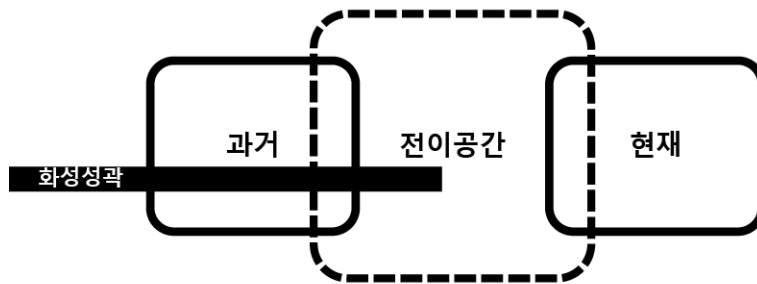
셋째로, 역사의 흔적과 현재의 도시가 만나는 공간([그림 4-2]에서 점선영역) - 공간에 담겨있는 시간이 변화하는 전이공간으로 현재 복원되어 있는 성곽과 현재 도시의 모습이 만나 이용자가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2] 기본공간구상

3. 공간별 전략

1) 전이공간 (남치)



[그림 4-3] 전이공간(남치부분) 공간개념

전이공간은 현재 남문 로데오 청소년 문화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으로 이미 오픈스페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화성성곽과 공간이 어울려 활용되기보다 독립적인 오픈스페이스로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남치 주변의 오픈스페이스 영역은 화성성곽과 도시가 만나는 구간으로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는 공간이다. 시간을 상징하는 수직적 요소를 도입하여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점진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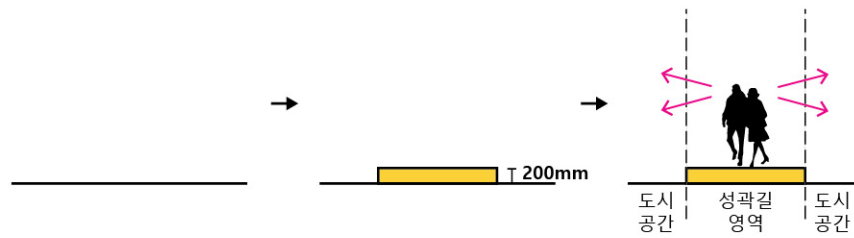
또한 현재 대상공간은 주변의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가로축과 맞물려 상업과 연계된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성곽의 역사적 정체성이나 상징성과 맞물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역과 성곽을 따르는 동선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생기는 문제로 성곽과 오픈스페이스 공간, 제안하는 성곽길이 원활하게 연결되는 형태로 공간을 구상한다.

2) 역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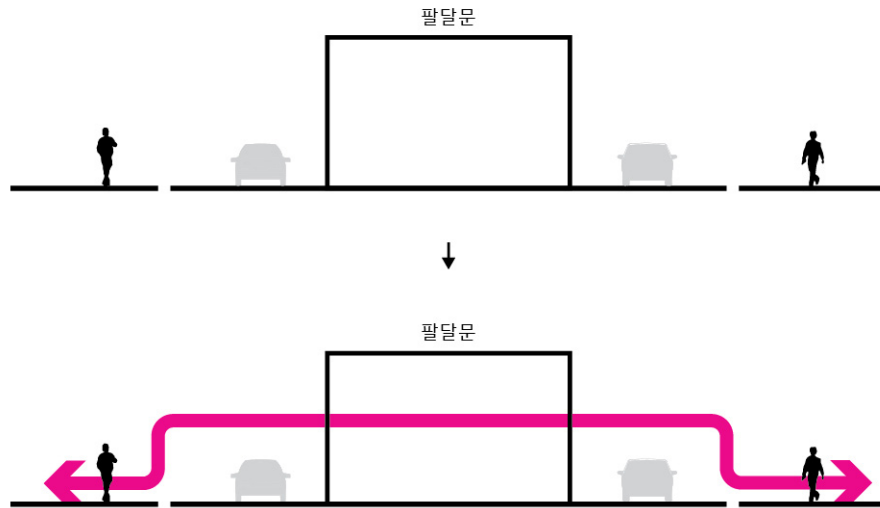
[그림 4-4] 역사길 연계 공간



[그림 4-5] 역사길 조성 개념

과거 성곽의 흔적을 따르는 역사길은 이용자가 현재의 영역과 다른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조성한다. 단절된 성곽의 연계하는 설계의 핵심이 되는 동선 축으로 남치에서 남수문에 이르는 구간을 단절되는 구간 없이 연속된 동선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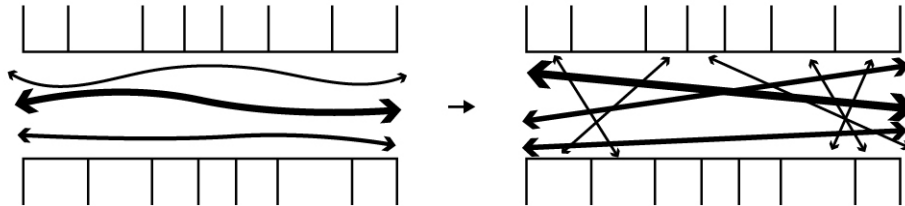
3) 보행교



[그림 4-6] 보행교 공간 전략

도시와 팔달문을 연계하는 동선으로 보행교 방식으로 현재의 로터리를 지나 팔달문과 팔달문 시장방면을 연결한다. 보행교는 팔달문을 중심으로 동과 서를 잇는 동시에 팔달문 주변 도시경관을 조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시장 선형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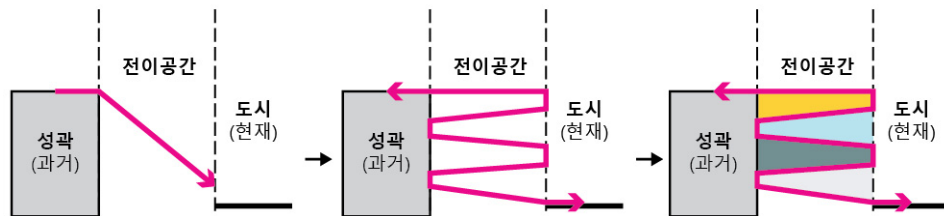
[그림 4-7] 선형공원 공간 전략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규모 상권과 제안하는 성곽길이 만나는 구역으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인 것과 동시에 가장 큰 혼잡함이 예상되는 공간이므로 성곽길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장을 이용하러 오는 이용자의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공간을 구획한다. 이곳은 현재 9시부터 23시까지 차량의 통행이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에도 보다 보행편의에 중점을 두는 공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존 동선의 흐름을 유지시키면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을 도입한다. 현재 양쪽의 2.5m의 차량 동선은 유지시킨 상태로 나머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선형의 오픈스페이스는 이용자의 보행속도를 줄여주어 성곽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장의 이용객이 혼잡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공간 내 식재를 통해 녹음을 제공하여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5) 전이공간(남수문)



[그림 4-8] 전이공간(남수문) 공간 개념

남수문 구간의 단절된 성곽부는 수원천을 건너는 일종의 보행교량 형태로 되어있어 현재 대상지의 표고보다 높은 상태로 단절되어 있다. 따라서 램프를 통해서 높이 차이를 극복하고 하부 성곽길로 내려오는 동안 시간의 흐름을 느끼도록 조성한다. 또한 램프 사이에 휴게시설을 두어 관광객과 시장 이용객을 끌어들이는 거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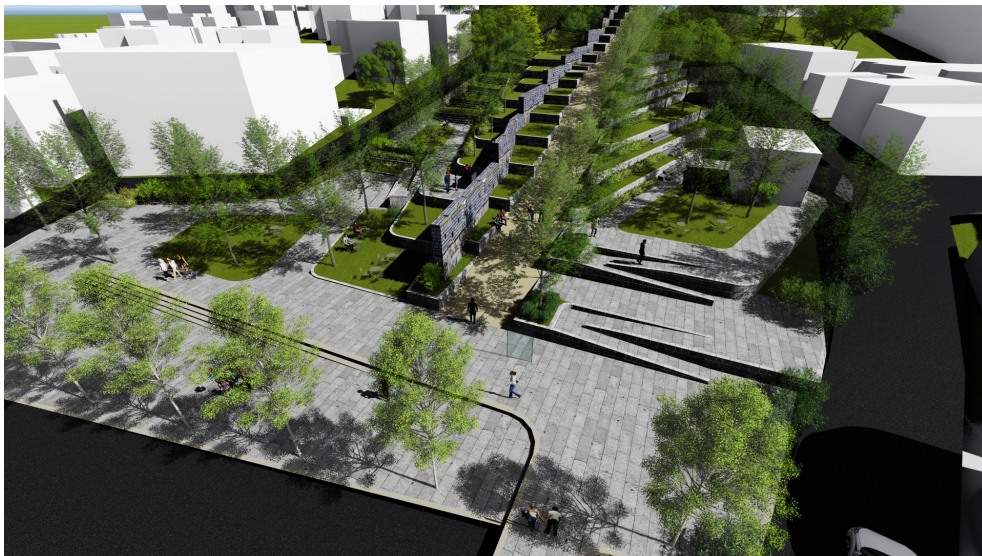
2절. 공간별 계획 및 설계

1. 공간별 계획

1) 전이공간(남치)

한단에 1m로 구성된 스탠드는 기능적으로 공간의 지형차를 극복하는 수단인 동시에 전이공간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스탠드의 재료는 성벽과 같은 맥락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이 통일성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지형을 따라 조성된 스탠드는 공간에 다양한 틈을 생기게 하고 일렬로 배열된 식재와 어우러져 시간의 흐름을 대변하는 경관을 연출하도록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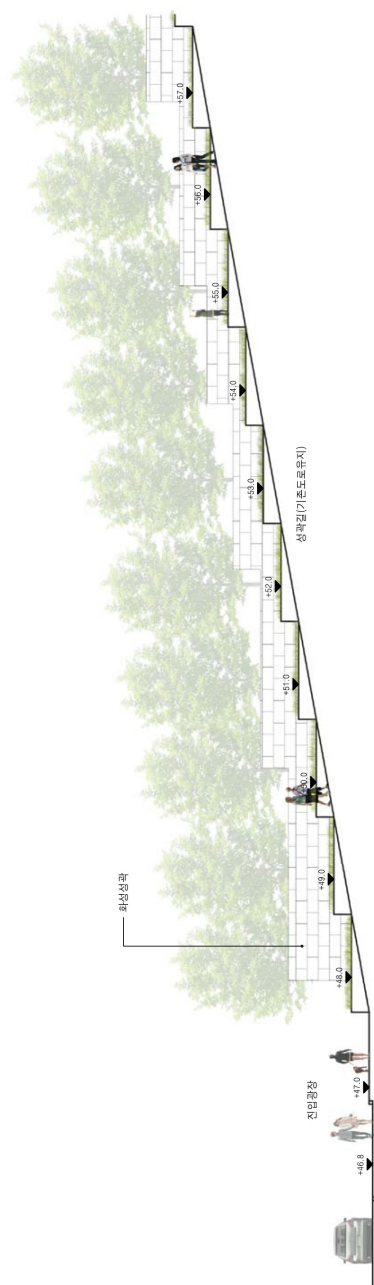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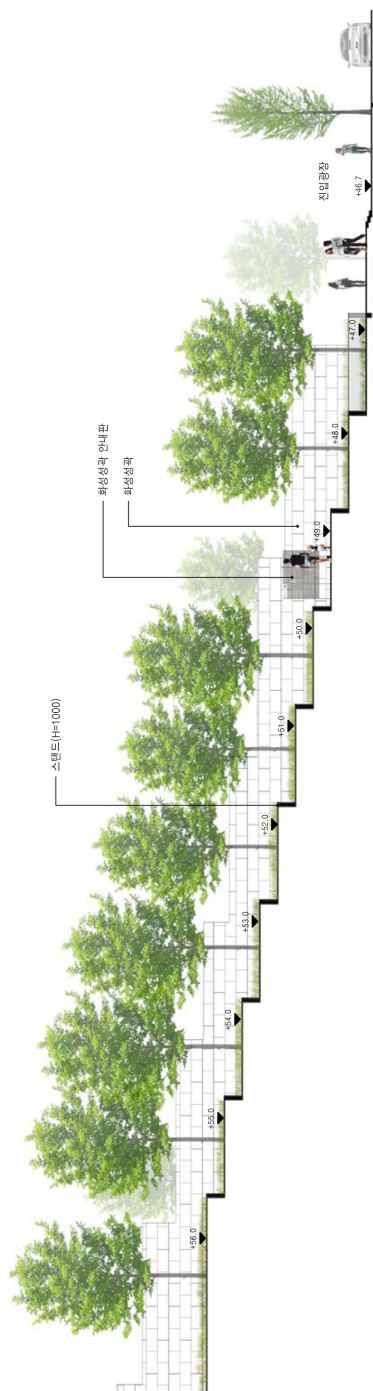
스탠드로 형성된 다양한 틈새 공간에 교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공간을 풍성하게 하고 기존의 오픈스페이스 역할을 갖추면서 성곽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도록 하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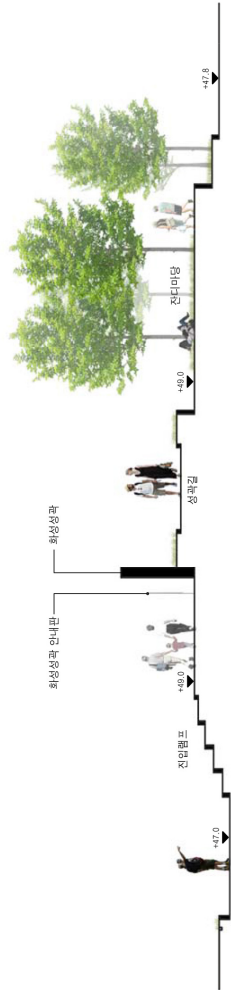


[그림 4-9] 전이공간(남치) 조감도



[그림 4-10] 전이공간(남치) 평면도





[그림 4-13] 전이공간(남치) 단면도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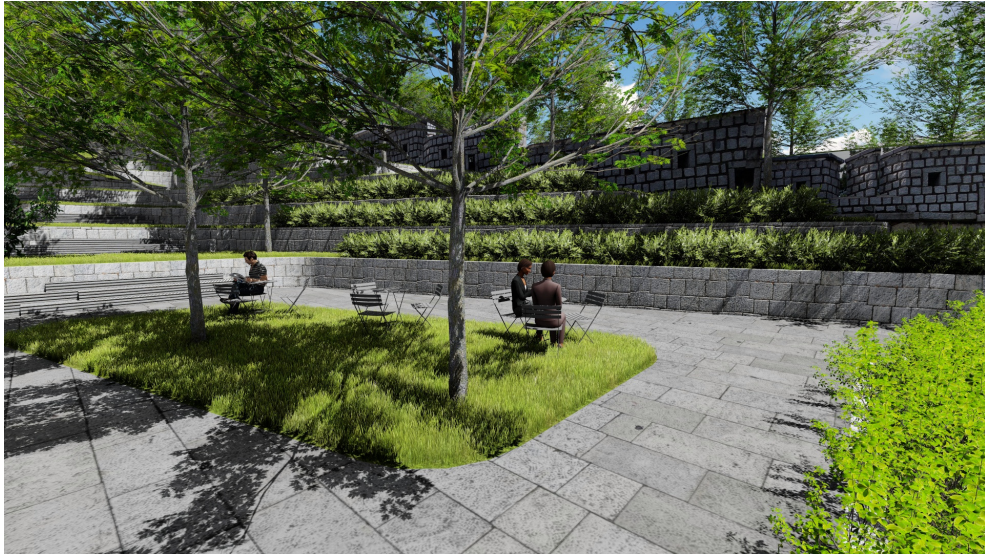
[그림 4-14] 전이공간(남치) 투시도 1

성곽을 따르는 기존의 동선은 유지하면서 주변의 오픈스페이스를 테라스 형태로 조성하여 다양한 높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림 4-15] 전이공간(남치) 투시도 2

성곽을 따르는 기존 동선으로 인하여 분절되어있던 진입부를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광장으로 조성하였다.



[그림 4-16] 전이공간(남치) 투시도 3



[그림 4-17] 전이공간(남치) 투시도 4

1m의 스탠드로 인해 생성된 공간들은 이용객들 성곽주변에서 휴식을 즐기며 보다 성곽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성곽이 갖는 역사적 시간과 현재 도시의 시간 사이를 연계하는 의미를 담은 공간이다.

2) 역사길

과거 화성성곽의 흔적을 따르는 역사길은 걷고 있는 이 공간이 주변 및 다른 보도와 다른 의미를 갖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용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주변의 도로보다 20cm를 높게 조성하였다. 과거의 성벽의 정체성을 이어받아 단절된 성벽의 구간을 연계하는 역사길은 이 공간을 통해 화성성곽이 온전히 연결되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 전용 공간의 역할을 한다.



[그림 4-18] 역사길 구간 평면도



[그림 4-19] 역사길 투시도 1



[그림 4-20] 역사길 투시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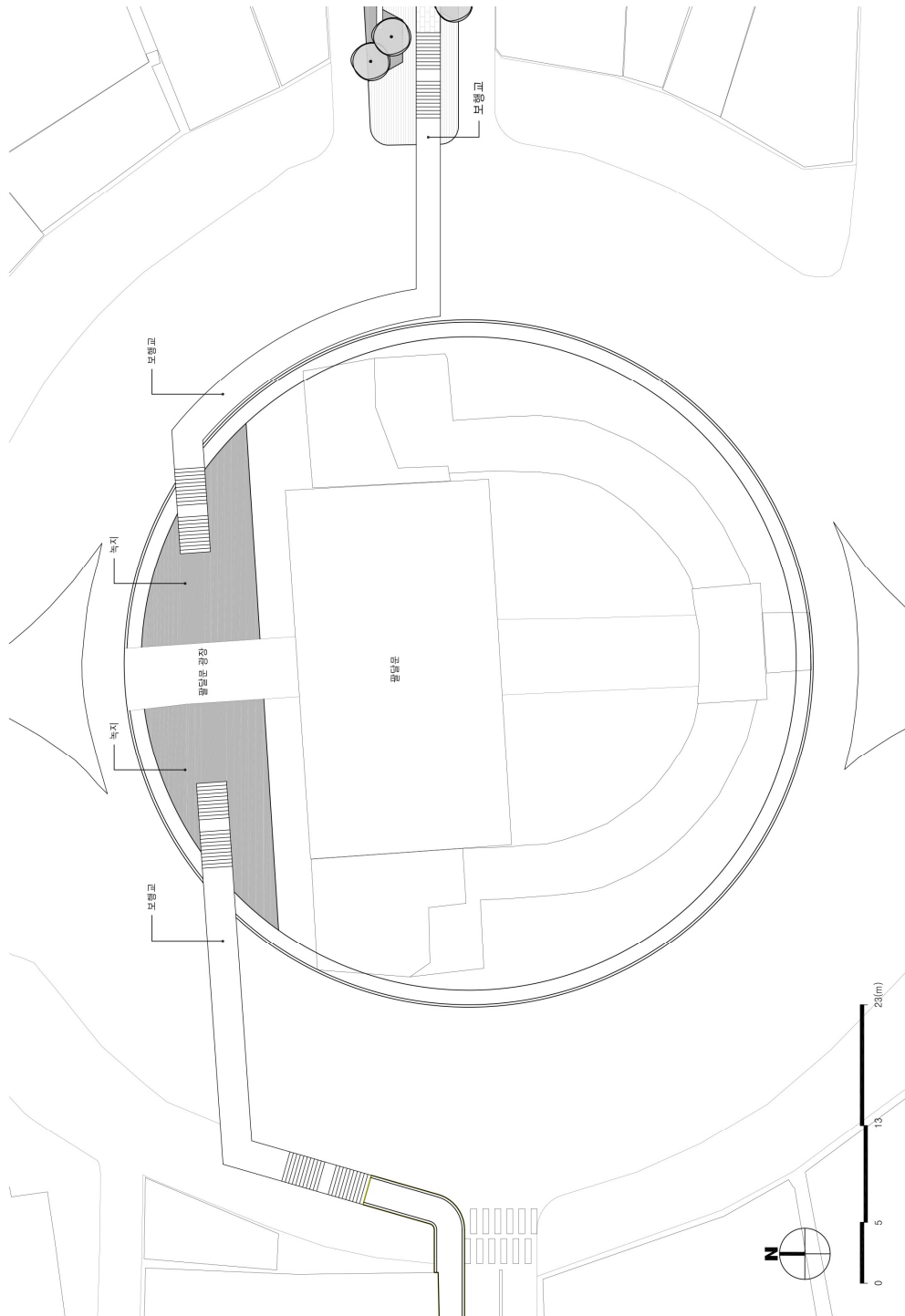
역사길을 통해 단절되어있던 화성의 성곽이 온전히 연결되며 기존에 보차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구간에는 보행자 전용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3) 보행교

보행교는 기존의 로터리방식의 차량동선으로 인하여 고립되어 있던 팔달문을 도시와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단절되어있던 화성 성곽의 동선을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구조물이다. 또한 현재 팔달문 로터리 주변에는 여러 노선의 버스가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교를 이용하여 기존 교통체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성곽길을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4-21] 보행교 평면도 1



[그림 4-22] 보행교 평면도 2



[그림 4-23] 보행교 조감도



[그림 4-24] 보행교 투시도 1

보행교로 연결된 팔달문은 보다 가깝게 팔달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4-25] 보행교 투시도 2 (팔달문시장과 연계되는 구간)



[그림 4-26] 보행교 투시도 3

4) 시장선형공원

팔달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을 통과하는 선형공원을 조성하여 성곽길로 인한 관광객의 동선과 시장 이용객의 동선이 상충되는 것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기존의 시간대별 차량통행을 제한했던 시스템에 기초하여 더욱 보행중심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권의 중심에 녹지와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현재 상업공간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며 공간과 주변상권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림 4-27] 시장선형공원 조감도



[그림 4-29] 시장선형공원 단면도 A, B
(왼쪽부터)

[그림 4-30] 시장선형공원 단면도 C, D
(왼쪽부터)



[그림 4-31] 시장선형공원 투시도 1



[그림 4-32] 시장선형공원 투시도 2

차량통행을 위한 포장면으로 조성되어 있던 공간에 녹지와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우선적으로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4-33] 시장선형공원 투시도 3



[그림 4-34] 시장선형공원 투시도 4

또한, 오픈스페이스와 시장이 연계되어 이용자들의 다양한 행태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전이공간(남수문)

단절된 성곽과 성곽길이 만나는 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공간이 전이되는 인식을 받기 불리한 조건을 램프를 통해 거리를 연장하였고 램프사이에 식재를 통하여 공간에서 전이되는 느낌을 갖도록 조성하였다. 기능적으로는 램프는 무장애 공간을 실현하며 편안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35] 전이공간(남수문) 평면도



[그림 4-36] 전이공간(남수문) 투시도 1



[그림 4-37] 전이공간(남수문) 투시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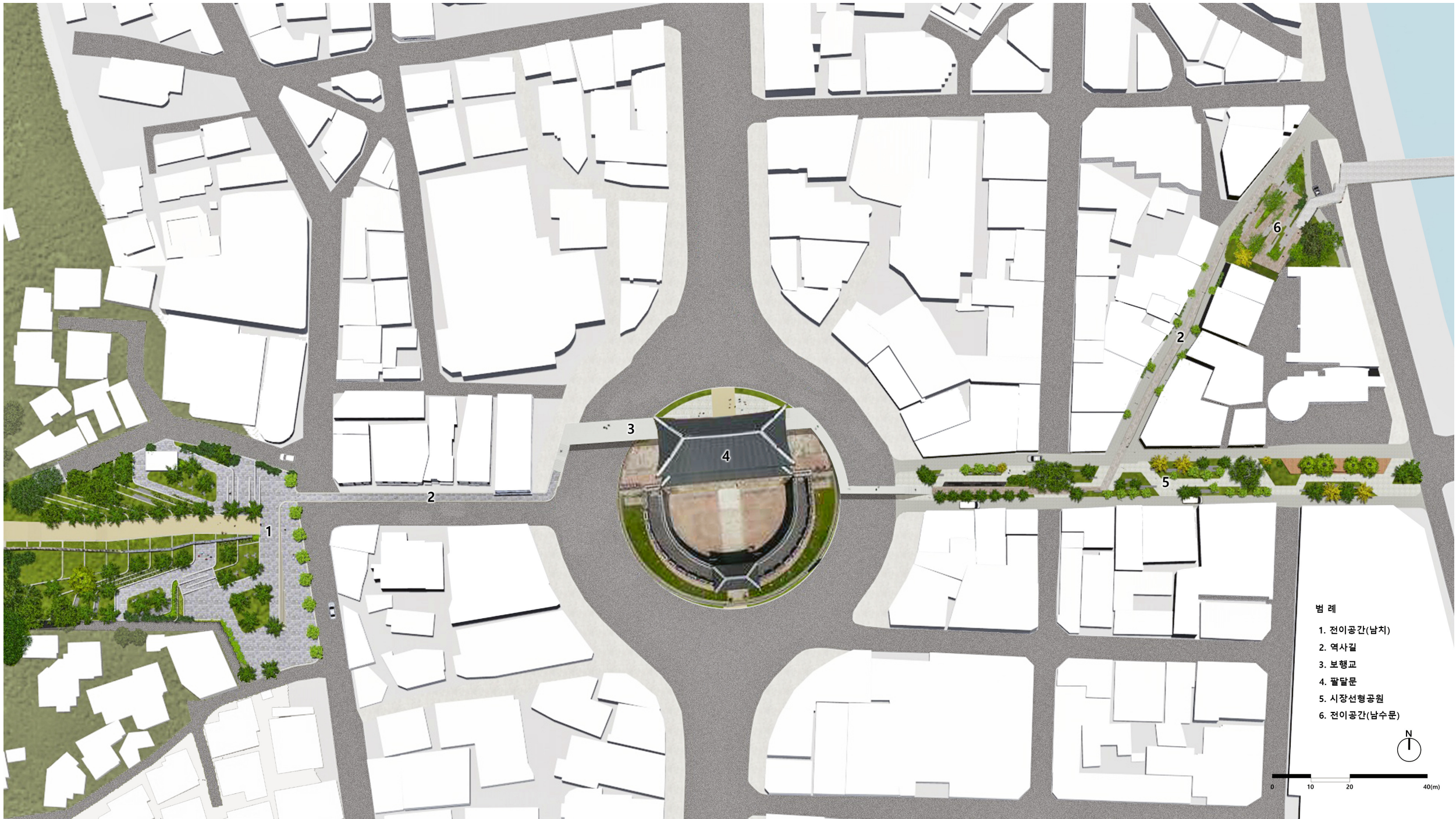
[그림 4-38] 전이공간(남수문) 투시도 3



[그림 4-39] 전이공간(남수문) 투시도 4

역사길을 따라 현재 복원 완료된 남수문까지 연결되며 연결부 주변으로 화성성곽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조성하여 역사길의 조성의도와 공간의 의미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2. 종합계획도



[그림 4-40] 종합계획도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문화재 주변공간의 설계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제도와 체계 및 법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다.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 했기 때문에 설계 시 적용하여야 하는 규제와 법률들을 조사하여야 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법 외에도 문화재와 그 주변공간에 적용되는 법률들이 다양하여 적용해야 할 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찾았다 하더라도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야 할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논문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과정들로 문화재 관련 사업이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라 생각되었다.

각 문화재의 분류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문화재를 다루는 프로젝트들이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동시에 문화재를 다루는 관점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시작되기 힘들다는 점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데 한계를 갖게 한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문화재들은 입지여건과 문화재 자체의 특수성에 따라 각기 다른 이용 행태와 도시공간에 대한 영향범위를 보이거나 일률적인 문화재 관리 범위 설정으로 인해 문화재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방식의 제한적인 접근은 우리 삶과 문화재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게 느껴지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진행된 설계의 의미는 그러한 단순한 관점의 성곽 복원이라는 초점에서 벗어나 수원 화성 성곽이 관계 맺고 있는 주변공간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수원 화성이라는 대형 문화유산이 100%로 완성된 복원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마지막 마침표가 쉽게 찍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마침표가 어떻게 찍혀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상지의 경관이 천천히 변해가는 방식을 설

명하고자 했다.

현재 수원 화성이 위치한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대는 수원시 내에서도 쇠퇴하는 지역 중 하나로 수원시에서도 화성을 활용하여 구도심의 쇠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프로그램적 이거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옛 공간의 재현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본 연구를 비롯한 문화재 주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와 설계적 제안들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구도심에 진행 중인 쇠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향후 문화재와 함께 그 주변공간을 주제로 하는 제안들이 활발히 생산되어 문화재 주변 공간이 도시에서 한 역할을 하는 컨텍스트로 자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오성훈, 남궁지희 (2013),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 1」 auri

오카와나오미, 미후네 야스미치, 충남발전연구원(역) (2012)
「역사적유산의 보존·활용과 마을만들기」
한울아카데미

Matthew Carmona 3명, 강홍빈 외6명(역) (2009)
「도시설계 :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대가

Allan B. Jacobs, Elizabeth MacDonald, Yodan Rofe (2002)
「The Boulevard Book」
MIT Press

최종덕 (2014)
승례문 세우기 : 승례문복구단장 5년의 현장 기록
돌베개

오덕성, 문홍길 (2003)
도시설계
기문당

유현준 (2015)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 도시를 보는 열다섯 가지 인문적 시선
을유문화사

[학위논문]

최종덕 (2011)

“건축문화재 보존체계의 관점에서 본 경복궁 복원의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중화 (2017)

“수원 화성행궁권역의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은이 (2017)

“재래시장 고유의 감각유산이 러브마크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소재 시장 방문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재현 (2015)

“남대문 시장의 도시공원화 설계 연구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의 적용 관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하나 (2014)

“활성화된 근린 소규모 전통시장 도시·공간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우 (2013)

“수원성곽복원정화사업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은 (2012)

“역사문화환경 보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관리(PM)적용 평가연구
: 수원화성을 대상으로”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재운 (2012)

“도심내 문화재 도시 공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흥인지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원기 (2011)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상훈 (2011)

“수원 구도심지에 위치한 유희 고층상업시설의 주거건축 재활용 계획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민영 (2011)

“문화재 보전과 도시계획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연구”

: 일본 역사마찌즈쿠리계획 인정도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유정 (2009)

“역사도심지의 문화복합시설에 관한 건축 계획

: 수원 화성 팔달문과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모장진 (2000)

“역사환경을 고려한 도시 문화재 주변지역 도시설계연구

: 서울시 돈화문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조홍석, 박현준, 박준선 (2014)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권, 4호

신선호, 양우현 (2017)

“문화재 주변 도시공간의 활용을 위한 문화재 영향범위 설정 방법”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8권, 3호

[인터넷 사이트]

수원시청, <http://www.suwon.go.kr/index.do>

ABSTRACT

Spatial Scenarios of Unrestored Areas of Hwa-seong Fortress, Suwon

Sanghyun, Par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d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The recent restorative projects of cultural heritages, such as the Dongdaemun History Culture Park development, the National Treasure Gate restoration, and Seoul fortress wall restoration reflect that recently the significant work has been completed to preserve the cultural heritage and brought up the issue of preserving historic fabric of city from the newly transformed city structure.

By looking at the restorative projects occurred within past few years. It was very common that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restricted the development and the range of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It's restriction and delay tend to cause the various conflict with current existence; inconvenience of current living. These concern tend to occurs even longer and cover larger area to the cultural assets such as castles, palaces, and royal tombs of Suwon.

To minimize these conflicts, the duration of restorative project of cultural

heritage tend to be planned in a very tight schedule and end up just keeping its historical identity without ignoring current city structure which cut off the city into broken areas.

To find ways to seamlessly connect the past and present city context is the beginning of this design thesis paper.

The location of design site, Suwon Hwaseong Fortress, is the first city constructed by the king Jeong-jo during the Joseon Dynasty. Hwaseong, which was part of the new urban plan, is a cultural heritage that has been shared with Suwon since its inception until now.

With city growth itself, Suwon completed significant work of preserving its historical fortress and identity from 1975 to 1979 accordingly. And 92% of its fortress has been preserved and most of the restoration is now completed. With a continuous restoration project, rest of 8% of the fortress area still need to be reclaimed. Thus, it was chosen to be the site of the design site which link the past and the present space. The chosen design site is where various city contexts meet and conflicts inevitably arises by having diverse city context, atmosphere and people.

The main aim of this design thesis paper is to find out the problems caused by restoration of Hwa-seong Fortress through urban design, and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enjoy the effect of restoration without harming contemporary urban structure and form, And suggests a design that will work without friction with the current urban context.

■ KEYWORD : Suwon city, Hwa-seong Fortress, Cultural heritage, Cultural-
Assets Restoration, Paldalmun, Architectural Heritage,
Urban design